

기본연구과제 2003-12

충청남도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개선방안

오 석 민

발 간 사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면서, 최근 전통문화자원의 중요성도 점차 부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역사문화자원이 지역 경쟁력의 척도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전통민속자원은 일반 민초들의 삶의 자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무형문화재는 우리의 정신적 유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큼니다.

현재 충청남도에도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가 7종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판소리 종목도 충청남도과 연고가 깊습니다. 은산별신제와 한산모시짜기 등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우리의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남도에서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공연은 그리 활발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충청남도의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에서의 대책, 특히 활용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일반의 관심이 크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의 잠재력이 크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향후 충청남도의 중요무형문화재 뿐만 아니라, 도 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도민의 정체성 확립, 그리고 관광상품으로서의 활용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본 연구는 그러한 연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조의 소중한 정신유산이라 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이를 통하여 지역의 문화 경쟁력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오석민 연구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2003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오 제 직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
제2장 무형문화재 제도에 대한 검토	3
제1절 무형문화재 지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4
제2절 무형문화재 관리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	8
제3장 충청남도의 문화재 지정 및 관리 현황	11
제1절 종목별 지정 현황 및 문제점	12
제2절 종목별 관리 현황 및 문제점	26
제4장 중요무형문화재 관리운영의 개선방안	43
제1절 지정 개선을 위한 제언	44
제2절 관리운영상의 개선을 위한 제언	51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60
제1절 종합 실태조사의 실시	60
제2절 전수교육 연계방안 구축	61
제3절 관련 종목의 통합관리	61
제4절 관련 프로그램 및 연계 코스의 개발	62
참고문헌	63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문화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전통문화자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강릉 단오제 또는 낙안읍성의 음식문화축제 등 축제문화의 성공을 대표하는 사례, 옹기·침선·매듭 등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 고조, 민속주의 상업화 성공 등은 모두 그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현상들이다.

무형문화재라고 하여 예외는 아니다. 현재까지 그 추세는 뚜렷하지 않으나, 일부 종목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이미지로서 부각될 정도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자수장, 화각장, 사기장, 판소리, 민요, 무용 등이 그러한 예에 속하며, 때로는 대학의 현직교수까지 이수자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강릉단오제, 옹기장, 처용무, 제주 칠머리당굿 등은 세계문화유산의 후보목록으로 등재되면서 일반의 주목을 받고 있다. 1960~1970년대 민속예술경연대회 등의 기회를 통하여 명맥을 유지하던 때와 비교한다면 격세지감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활성화는 일부 ‘인기종목’에 한정된 것일 뿐이다. 대부분의 경우, ‘전승의 단절’을 염려해야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의 교육·전수 및 활용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무형문화재의 경우, 단체종목은 지역축제 등을 통하여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한 공예부문은 기념품 등 문화상품으로 개발할 여지가 많은 문화재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전·전승·활용 등 관련 활동이 거의 전적으로 기·예능보유자의 개별적 활동(제작·공연 및 교육·전수)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약이 크다. 특히 판소리와 같은 예능 분야의 경우, 보유자의 개인적 역량과 사회적 지명도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충청남도의 경우,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향토축제도 없거니와, 기념품으로 지명도가 높은 문화상품도 개발되지 못한 형편이다. 다만 판소리의 경우,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전주대사습 또는 동·서편제로 등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충청도의 중고제 전통은 크

충청남도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개선방안

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 중요무형문화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관련 기록의 검토, 기·예능 보유자와 전수교육보조자 등과의 면접, 그리고 전수교육과 공연 등에 대한 참여관찰 등을 통하여 무형문화재 관리현황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개별 중요무형문화재가 처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2002년 필자가 수행한 바 있는 『충청남도 전통민속자원의 실태 및 관리현황』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중요무형문화재가 처한 상황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문화재 당국의 정책시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재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축제와의 연계, 관광상품화 등을 통한 활용방안의 모색에 주안점을 두게 될 것이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와 연관이 깊은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7종목(기·예능보유자 11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종목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 종목들이 처한 현황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우선 문화재 지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안, 전수교육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공연 또는 제작(마케팅 포함) 현황 및 개선안, 연계 개발이 가능한 자원의 파악 및 연계개발방안의 모색 등을 하게 될 것이다.

우선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 등에 관한 기존 연구성과를 검토함으로써, 무형문화재 전반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문화재청·충청남도 및 관련 시·군의 각종 문건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현지조사에서는 기·예능보유자 또는 전수생, 그리고 관련 연구자와의 면접을 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연 또는 제작 과정에 대한 참여관찰을 실시한다. 이러한 경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각 사례별 지정·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거쳐 개별 문화재의 지정·관리 등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하게 된다.

제 2 장 무형문화재 제도에 대한 검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무형문화재 제도는 일본·대만과 함께 우리 나라 등 3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전통문화의 보전과 함께,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국민의 사기가 저하된 가운데 천황을 숭상하는 대화정신(大和精神)을 회복하자는 뜻에서 추진되었고, 대만에서는 고산족(高山族)의 풍속을 관광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시행되었다.

무형문화재 제도의 시행에 대한 국가별 차이에 대해서는 일찍이 이보형이 구분한 바가 있다.¹⁾ 그에 따르면, 첫째, 전승 환경이 양호하여 별도의 보존조치가 불필요한 국가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란), 둘째, 전통문화가 현대문화로 전승·발전되어 보호조치가 필요치 않는 국가 (유럽 등), 셋째,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인하여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국가 (북한 등), 넷째, 전승이 단절될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능력이 부족한 국가 (일부 저개발국)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한국의 경우, 전승의 단절을 우려할 정도로 사회가 급변한 경우에 속한다. 그러한 가운데 1961년 문화재보호법이라는 통합 법률 제정 당시 무형문화재 제도를 포함함으로써, 무형의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지정에 있어서는, 초기 관련 학자들의 종합적인 조사활동과 더불어 민속예술경연대회 운영이 많은 영향을 미쳤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일부에서는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의 필요성, 특히 부조리가 발견되는 민속예술경연대회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반면에 유네스코에서는 무형의 문화유산의 전승을 위한 지침서의 모델로 삼을 정도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즉 유네스코에서는 1993년 한국의 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여러 나라의 사례를 참조하여 마련한 지침서를 각 국가의 문화당국에 발송하였고, 1996년 10월 22일부터 열린 ‘무형문화재 보존개발 국제 정책회의’에서도 한국의 제도를 원용한 「무형문화재관리지침서」가 제시한 것이다.

최소한 1960년대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 당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정도였으나, 최근 일부 종목의 경우 대학교수까지 이수자를 희망하게 될 정도로 상황이 급변하였음을 볼 때, 무형문화재 제도는 일정한 성과를 거뒀음은 부인할 수 없다.

1) 이보형, 1996. 12., 「무형문화재 지정심의에 대한 검토」,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 효율적 관리방안 세미나』.

충청남도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개선방안

이러한 상황에서도 무형문화재 제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문화재 관련 당국자들도 의견 수렴을 통하여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유형별로 정리하게 될 것이다.

- 무형문화재 제도는 전 세계에서 대만, 일본과 한국에서만 운영됨
- 1993년 유네스코에서 한국 제도를 모범 삼아 ‘관리지침서’를 마련할 정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 다소의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으나,
- 일부 성공적인 종목의 경우, 전통문화의 계승에 많은 공헌을 하였고,
- 전수 희망자들이 경쟁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임

제1절 무형문화재 지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문화재 지정과정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사안이다. 우선 문화재 지정의 기준이 모호하고, 그에 따라 주관적 판단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²⁾

예를 들어, 해당 종목의 역사적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이 있다. 즉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소실될 우려가 큰 종목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궁중연례악이나 정재(呈才)는 역사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악원에서 잘 보존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치 않다는 결론에 이른다. 또한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에 해당하는 종목, 예를 들어 궁중연례악 가운데 처용무(제39호)와 학연화대합설무(제40호)가 독립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전승 단절의 가능성을 우선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이 입장은 무형문화재 제도 설립의 취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막상 보유자의 기량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정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예를 들어,

2)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이보형에 의하여 잘 정리되어 있다. 이보형, 1996. 12., 「무형문화재 지정심의에 대한 검토」,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 효율적 관리방안 세미나』.

각 지방의 농요를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승 중단 위기에 있는 각 지방의 삼현육각이 지정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진다.³⁾

반면에 보유자로 인정된 대상 인물의 기량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즉 명인의 반열에 오른 경우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보유자가 스스로를 명인의 반열에 오른 것으로 자처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천한 종목’을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개인적 창조성이 우선되는 종목의 경우에는 ‘문화재 보전’이라는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판소리와 산조의 경우, 원래의 방식을 단순 반복하면, ‘사진소리’로 폄하를 받고, 또한 새롭게 창시한 기법이 곧 새로운 유파의 성립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 순수한 의미에서의 전승은 아닌 셈이다. 실제로 새로운 유파를 창시한 대금 산조의 강백천을 보유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반면에 아쟁 산조 창시자는 보유자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문화재 지정 단위에 대한 문제는 끊이지 않는 논란거리이다. 하나의 문화 복합(culture complex)을 이루는 부분 가운데, 일부를 여러 종목으로 분리하거나, 또는 전체 중에 일부를 독립하여 지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곡의 경우, 거문고·가야금·세피리·대금·해금·양금·단소·장구의 반주를 수반하는 음악임에도, 창자만을 독립하여 보유자로 인정하고 있다. 때로는 판소리와 고법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종목을 분리하여 지정한 사례도 드물지 않다.

최근 분리 지정의 몇 사례가 통합된 경우, 예를 들어, 판소리와 고법(鼓法)을 합치고, 끊음질을 나전장에, 그리고 북메우기를 악기장에 통합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의 개선 사례일 뿐이며, 더욱이 전체 가운데 일부분을 독립하여 지정한 경우, 개선책이 분명하지 않다.

물론 지정 단위와 범위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또한 해당 종목이 연행 또는 제작되었던 사회적·시대적 환경까지 지정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러나 합주 종목 가운데 한 부분만을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또한 최소한 종목 지정과정에서는 종목이 처했던 역사적 환경에 대한 고려는 분명히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⁴⁾ 이에 대한 연구성

3) 이에 대해서 이보형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하였다. 즉 일본에서는 예술성이 강조되는 경우만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으며, 풍속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와 구별하여 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충청남도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개선방안

과는 특히 종목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후대의 변형을 막고, 아울러 문화재 활용의 폭을 넓히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⁵⁾

종목 고유의 특성에 대한 고려도 미흡한 편이다. 판소리 등 음악 분야의 전수과정에서 유파간의 상호 교류가 많았음은 이미 지적했거니와, 모든 민속 현상은 기본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끊임없이 변하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문화재 지정으로 인하여, ‘원형의 보전’을 위하여 고착된 패턴을 강요받는 폐쇄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⁶⁾

지정 대상의 편중 또한 논란거리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1960년대 이후 종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종합조사는 미지정 분야 발굴, 그리고 기존 보고서의 오류를 시정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미지정 분야의 발굴과 관련해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희소한 대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과거 생계를 유지하는 방편까지도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과거의 유산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⁷⁾

종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고조라는 점은 역설이다. 1960년대의 경우, 곧 소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속현상의 보존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해당 분야에서 지역적 특색을 갖춘 다수 종목이 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다.⁸⁾

그러나 최근에는 문화재 지정을 신청한 종목에 한하여 개별조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원인은 다양하겠으나,⁹⁾ 조사활동의 부진으로 인하여, 문화재 지정 자체의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문화재 지정에 있어서의 오류와 전승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형 또

4) 이필영은 종목 지정에 있어서 역사적 환경에 대한 조사·연구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필영, 2003, 「무형문화재 정책의 근원적 문제」, 『역사민속학』 제16집.

5) 이와 관련해서는 본 고 해당 종목별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6) 이에 대하여 이보형은 기본적인 틀만을 법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당국의 내규로 정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보형, 1996. 12., 「무형문화재 지정심의에 대한 검토」,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 효율적 관리방안 세미나』.

7) 이와 관련해서는, 과거 생업활동을 문화재로 지정한 충청남도 사례를 들면서 논의한 바가 있다. 오석민, 2002, 『충청남도 전통민속자원의 실태 및 관리현황』, 충남발전연구원.

8) 농악의 경우, 경기충청음악(평택농악), 호남우도농악(이리농악), 호남좌도농악(필봉농악), 경남농악(진주삼천포농악), 영동농악(강릉농악) 등 지방적 특색을 지닌 종목을 지정되었다.

9) 이러한 현상은 부분적으로 문화재 지정과 관련한 말썽을 피하려는 연구자들의 태도에서 기인한다. 최근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도,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편으로는 관련 연구자 조사 자체를 피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부당 청탁 등 문화재 지정을 둘러싼 비리가 표출되기도 한다.

한 지적되고 있다.¹⁰⁾ 이 보고서의 관점은 부분적으로 기존에 연구를 진행한 민속학자들과 관점을 달리하는 데에 있기도 하지만, 보다 엄밀한 조사와 고증을 통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종목 자체에 대한 조사에 그치지 말고, 참여관찰을 포함한 장기간의 조사를 통하여 ‘민속지 수준’의 보고서가 나와야 하며, 해당 종목의 역사적 환경까지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크다.¹¹⁾ 이상의 논의를 요약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1) 지정 기준의 모호성 및 주관성

- 하나의 문화복합을 분리하여 지정하는 사례
- 전체 중 일부를 독립하여 지정하는 사례

(2) 종합조사의 미진에 따른 결과

- 원인 :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결과, 논란을 피하려는 분위기 확산
- 실태 : 신청종목에 한하여 심사를 위한 소극적 조사가 주류
- 결과
 - 기존의 오류 방지
 - 미조사 분야가 제외된 지정 대상의 편중성
 - 특히 사회변화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대상이 방치됨
- 대책 : 장기간의 참여관찰을 통한 민속지 수준의 보고서, 특히 해당 종목에 대한 역사적 환경까지 조사하여야 함

(3) 원형보전의 강요에 따른 창조성 결여

- 시대적 흐름에 뒤쳐지는 결과를 낳음
- 종목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 ※ 예를 들어, 판소리는 스승의 창법을 그대로 모방하면, 사진소리라 하여 높이 평가하지 않음

10) 문화재청·한국역사민속학회, 2003. 2, 『중요무형문화재 단체종목 전승실태조사 및 지원관리방안 연구』.

11) 이필영, 2002, 「충남의 무형문화재 현황과 개선방안」, 『충청남도 문화재 관리정책의 현황과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제2절 무형문화재 관리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

현재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의 연령은 대부분 고령에 속한다. 심지어 인정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하는 사례까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해당 종목 보유자의 사망 이후의 조치가 미흡하여 공식인 채로 남아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보유자 외에 전수생들의 고령화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보유자후보, 전수교육조교 등 전수생의 연령이 이미 고령에 속하는 데다가, 보유자 인정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전수생의 신분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

비인기종목 또는 취약종목으로 분류되는 무형문화재 종목에서 전수생의 이탈문제, 보유자와 전수생의 불화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전수생들이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때로는 개인적인 필요에 의하여 마음대로 기·예능을 변형시키고 있다고 본다. 반면 보조자로서는 소액의 전승지원금으로는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므로 보유자로부터 독립된 활동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도 있다. 기·예능보유자가 특권을 주장하는 요구하는 경향이다. 소위 ‘인간문화재’라는 공식적인 호칭을 주장하는 요구는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종목별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1994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결과에서 파생된 문제도 있다. 일부에 불과하겠지만, 금품을 받고 이수증을 발급하고, 또한 가족 또는 친지를 전수생으로 선정하여 전승지원금을 유용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¹²⁾

원형보전은 전수교육에 있어서 핵심적인 변수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원형 보전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12) 김종태, 1996. 12., 「공예분야 전승유과 지정의 검토」,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 효율적 관리방안 세미나』. 이와 관련하여 김종태는 보유자의 후계자 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또한 전수장학생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고 보유자의 지원금은 줄이자는 견해도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원형 보전과 현대적·창조적 계승의 문제의 문제는, 풀기 어려운 난제처럼 얽혀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하였듯이, 판소리나 산조처럼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본래적 특성인 경우에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따라서 원형 보전의 차원과 새로운 발전을 지향하는 창작활동을 구분할 필요성은 항상 제기되어 왔으며, 기록 보존을 위한 경우에는 영상물 제작을 통하여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줄곧 제기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공예 분야의 경우, 전승공예대전과는 별도로, 전승을 기초로 하는 현대공예대전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¹³⁾

사회적 맥락을 이탈한 지정문화재의 미래 또한 문제이다. 특히 놀이와 의식과 같은 단체종목의 경우,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이 변하면서 이와 같은 기대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정종목은 공동체 성원과의 유대가 끊겼고, 공연행사는 관련 연구자 등의 잔치로 변질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문화의 상품화’를 겨냥하는 상업적 축제로 변하는 것보다 더욱 큰 문제일 수도 있다.

자생력을 갖춘 인기종목과 그렇지 못한 비인기종목의 차별적 지원 방안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사안이다. 즉 대학교에 관련학과가 개설되는 등 전승이 활발한 종목의 경우,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고, 취약종목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무형문화재 제도를 설치한 원래의 취지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그 대상 종목으로는 자수장, 화각장, 사기장, 판소리, 민요, 무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보급과 선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종의 교육자격증, 즉 예사(藝師) 제도를 원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문화재 지정을 해제할 경우, 보전의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이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완벽한 기록’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용록은 원형 보전을 강요하는 것은 변화된 상황에서의 진정한 전승의 가능성을 막는 역기능이라는 견해를 제기하면서, 나아가서 “소수의 엘리트로 하여금 원형 그대로 취득·전승시킬 것인가? 아니면 전통문화의 현대적 변용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보급할 것인가?” 하는 제도의 지향점과 연관된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¹⁴⁾

13) 김종태, 1996. 12., 「공예분야 전승유파 지정의 검토」,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 효율적 관리방안 세미나』.

14) 오용록, 1996. 12., 「놀이·연희분야 전승유파 지정의 검토」,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 효율적 관리방안 세미나』.

충청남도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개선방안

지정 대상 분야를 재분류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용록은 음악과 춤의 경우, 보유자가 당해 종목을 생업으로 삼고, 이를 통해 사회적 급부를 얻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I 과 II의 범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I의 경우, 보유자의 사망과 동시에 후속 인정을 금하고, '전수의 대상'이 아닌 '기록의 대상'으로 간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¹⁵⁾

무형문화재 재료의 제작을 전담할 기구의 신설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즉 유형문화재의 보존과학실과 마찬가지로, 조사보고서에 보유자가 사용하는 원·부자재의 서식·자생·구입처, 제작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여 공연이나 작품 제작에 원할함을 기하자는 의견이다.

(1) 관리 현황

- 전수교육의 문제점
 - 기·예능보유자와 전수생의 고령화
 - 전수생의 이탈 및 보유자와 전수생의 갈등
 - 기·예능 보유자의 자율성 강화에 따른 자의적인 운영
- 비인기종목 : 전수생 부족에 따른 전승 단절의 가능성
- 단체 종목 : 공동체의 붕괴에 따라 자생 기반 상실
- 공연 또는 제작 재료의 부족에 따른 변형의 우려
- 시대의 변화에 따른 창조적 변용 기회 부족

(2) 대응방안

- 인기종목에 대한 지정 해제 및 비인기종목 집중 지원
- 활성화 정도를 기준으로 재분류하는 방안
- 재료 공급 전담기구의 신설
- 원형 보전 및 여타 공연 또는 제작의 이원화

15) 오용록, 1996, 「놀이·연희분야 전승유과 지정의 검토」,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 효율적 관리방안 세미나』.

제 3 장 충청남도의 문화재 지정 및 관리현황

현재 충청남도과 연관된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는 7종목이며, 11인이 기·예능보유자로 인정받고 있다. 그 현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작고한 보유자 포함)

[표 1] 충청남도의 국가 지정 重要無形文化財 현황 (7종목 11인)

번호	명 칭	기·예능 보유자					指定日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保有種別	住 所	
5	판소리 (64.12.24)	朴東鎭	男	1916. 7.12	赤壁歌	公州市 무릉동 370	73.11.11
9	恩山別神祭 (65. 2.15)	車鎭龍	男	1915. 6. 8	大 將	扶餘郡 恩山面 恩山里 114	87. 1. 5
		朴昌奎	"	1932. 9.15	化 主	扶餘郡 恩山面 恩山里 143	98. 6. 5
		黃南姬	女	1937. 3.12	巫 女	扶餘郡 恩山面 恩山里 111	"
14	韓山 모시짜기 (67.1.16)	文貞玉	"	1928. 9. 9	모시짜기	舒川郡 韓山面 芝峴里 159	67. 1.16
		方連玉	"	1947.12.16	모시짜기	舒川郡 韓山面 芝峴里 山23	2000.8.22
74	大木匠 (82. 6. 1)	田興秀	男	1938.11. 5	大木	禮山郡 德山面 大洞里 山23-1	2000.8.21
75	機池市 줄다리기 (82. 6. 1)	具滋東	男	1944. 4.17	줄다리기 지도	唐津郡 松嶽面 機池市里 320-2	2001.9.6
		張基天	男	1935.10.19	줄제작	唐津郡 松嶽面 機池市里 104	2001.9.6
86- 나	향토술 담그기 (沔川杜鵑酒 (82. 6. 1)	朴昇達	"	1937.6.26	술담기	唐津郡 沔川面 城上里 693	86.11. 1
88	바디匠 (88. 8. 1)	具鎭甲	"	1917. 8. 5	바디製作	舒川郡 韓山面 鍾芝里 307	88. 8. 1

전국적으로 중요무형문화재는 108종목이며, 기·예능 보유자는 총 218인이다. 따라서 각 시·도별 평균(6.75 종목, 13.625명)과 큰 차이가 없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예(3종목), 놀이(1), 의식(1), 음악(1), 음식(1) 분야가 지정되어 있으며, 연극·무예·무용 분야는 지정된 종목이 없다. 중요무형문화재의 시·군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천군(2종목 3인), 당진군(2종목 3인), 부여군(1종목 3인), 예산군(1종목 1인), 공주시(1종목 1인)의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부여와 서천의 3종목이 과거 저산팔읍(亭産八邑)의 전통 모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더욱이 다른 문화재 5종목 또한 저산팔읍 모시와 연관이 깊으며, 지금까지 계속되는 관련 민속, 또는

충청남도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개선방안

비교적 최근까지 지속되었던 관련 민속도 많은 편이다. 따라서 지정문화재만으로도 연계 개발의 가능성이 큰 편에 속하며, 또한 미발굴의 자원을 고려한다면 그 잠재력은 두드러져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후술하게 될 것이다.

제1절 종목별 지정 현황 및 문제점

1) 판소리

현재 판소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로 일괄 지정되어 있다. 판소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으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종목이기도 하다.¹⁶⁾ 그 가운데 공주 출신의 박동진(1916~2003)은 중고제의 전통을 이은 「적벽가」의 보유자로 인정되어 있으며, 충청남도과 연고가 있는 유일한 예능종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박동진이 2003년 타계하면서, 보유자는 현재 공석으로 남아 있고, 전수교육조교가 2명이 정해져 있다. 그 현황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판소리 적벽가 지정 현황

제5호 : 판소리(1964.12.24. 지정,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입주(1997년 공동))						<보유자:10, 전수교육조교:15>	
구분	성명	생년월일	성별	기·예능	인정일	거주지	비고
	(故)박동진 (朴東鎭)	1916. 7.12	남	적벽가 (赤壁歌)	'73.11.11		'03. 7. 8. 사망(87세)
조교 (후보)	강정자 (姜貞子)	'42. 1. 3	여	"	'93. 8. 2	경기 성남시	경북대예술대학 국악학과
조교	김양숙 (金陽淑)	'64. 1.13	여	"	'94. 4. 1	충남 공주시 무릉동 370	

한편 예능 분야의 개인 종목은 주로 보유자 자신의 역량과 사회적 지명도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박동진의 역량은 1968년 ‘흥부가’를 완창하

16) 판소리는 2003년 11월 7일 프랑스 파리 본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유네스코(UNESCO) 선정 ‘인류 구전(口傳)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됐다. 이는 관련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18명으로 구성된 국제심사위원단이 지난 11월 3~6일 58개 후보 유산을 심사한 결과이며, 그 결과 유네스코에서는 유네스코는 지난 9월말 열린 제32차 총회의 무형문화재 보호협약이 발효되면 세계 걸작으로 지정된 무형 유산은 자동적으로 세계무형문화유산목록에 예정이다. 유네스코에서는 지난 2001년 5월 처음으로 세계적 가치를 지닌 구전 및 무형 유산을 인류 걸작으로 선포했으며, 이때 한국의 종묘제례악이 19개 걸작 중 하나로 지정된 바가 있다. 조선일보, 2003년 11월 8일자.

면서 발휘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소리꾼의 평균 공연시간이 20분 정도의 소위 ‘토막소리’였으므로, 박동진의 5시간에 걸친 완창은 가히 기록적이라 할 수 있었다.

박동진이 판소리를 완창하며 청중들을 사로잡은 사건은 장안의 큰 화제가 되었다. 이어 1969년 춘향가(8시간), 1970년 심청가(6시간), 1971년 적벽가(7시간), 1972년 「수궁가」 등 판소리 다섯 마당을 차례로 완창했다. 또한 판소리 다섯 바탕 외에 「변강쇠전」, 「배비장전」, 「옹고집전」, 「숙영낭자전」, 「예수전」, 「이순신전」 등 고전과 창작을 넘나들며 다양한 판소리를 완창하는 업적을 남겼다.

그의 완창 판소리는 당시 잊혀져가던 판소리를 새롭게 부흥시키고 수많은 명창들이 완창 판소리에 도전하는 시금석이 되었다. 그는 기교에 능한 소리, 창조적인 아니리(대사)와 짜임새있는 너름새(연기)로 인기몰이를 지속했다.

그의 특징으로는 서민적인 분위기를 단연 꼽는다. 비속한 언어, 음담패설, 욕설까지 자연스레 구사해 무대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이를 통해 국악의 대중화를 이룬 것이다. 그가 판소리가 사라져갈 무렵 판소리의 부활을 이룬 선구자로 평가받는 것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이다.

특히 박동진은 다른 국악인에 비해 친숙하게 국악의 아름다움을 알려준 인물이었다. 1994년 “쿵딱, 제비 몰러 나간다~”(판소리 「홍보가」의 대사)로 시작되는 의약품 광고에서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여”라고 호방하게 내지르면서 일약 유명인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박동진은 1973년 마침내 판소리 다섯 마당 중 「적벽가」의 예능보유자로 인정받았고, 같은 해 국립창극단 단장으로 임명되었던 것이다.¹⁷⁾

한편 박동진의 경우, 중고제와의 관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의 경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 예능보유자 박동진은 1916년 7월 12일 충남 공주 무룡동에서 태어났다. 대전공립중학 3학년이던

17) 그후의 활동 또한 다채롭다. 1984년에서 1986년에 걸쳐 강릉해화전, 무숙이타령, 궁가, 옹고집전, 장끼타령 등을 완창하였다. 1987년 국립국악원 지도위원이 되었고, 1993년 인간문화재진흥회 회장과 국립극장 명예종신단원이 되었다. 그에게는 미완의 소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불교대전」과 「진주 논개전」을 부르지 못한 것이다. 특히 「진주 논개전」은 작품구성을 완성하고도 발표하지 못했다. 그의 작품으로 「판소리 이순신장군 일대기」가 있고, 1995년에 음반 「박동진 명창의 바탕소리로 듣는 판소리 길잡이」를 내놓았다. 1981년 은관문화훈장, 1982년 전국국악대상, 1983년 서울시 문화대상, 한국문화대상(성악), 1994년 동리대상 등 많은 상을 수상하였으며, 1996년에는 판소리 전승에 기여한 공로로 제3회 방일영 국악상을 수상하였다.

충청남도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개선방안

16세 때 판소리를 배우기 위하여 학교를 그만 두었다.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창극단 ‘협률사’의 공연을 보고, 소리를 배우려고 집을 나와 전국 명창을 찾아 소리를 익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33년 중고제의 전통 가문에 속하는 김창룡의 아우 김창진 밑에서 심청가를 배운 것을 시작으로 하여, 정정열에게서 춘향가(1934), 유성준에게서 수궁가(1935), 정춘풍을 이은 조학진에게서 적벽가(1936), 박지홍에게서 흥부가(1937)를 배웠다. 이처럼 근대 5명창인 대가들을 골고루 사사해 자신만의 독특한 소리로 재창조했고, 판소리공연시 사설이나 곡조를 즉흥적으로 붙여 청중들을 사로잡았으며, 판소리의 재담이나 익살 등을 유달리 구수하고 걸쭉하게 구사해 판소리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즉흥적이고 일정한 형태가 없는 소리를 구사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¹⁸⁾

한편 서천에서 출생한 김창룡은 강경에서 출생한 김성옥과 김정근의 뒤를 이은 중고제 판소리의 대표적인 가문이다. 그러나 막상 박동진이 처음으로 소리를 배웠다는 김창룡의 아우 김창진은 부친의 지도를 받다가 판소리를 알게 되면서 가문의 법제를 어기게 되었고, 이에 집을 나온 후 혼자 수련하여 일가를 이룬 인물이다.

또한 박동진은 김창진의 제자라고는 하나, 그후에는 여러 법제를 부르는 당대의 명창에게서 두루 배운 인물이다. 따라서 박동진이 중고제를 이은 명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¹⁹⁾ 실제로 박동진은 생전에 스스로 ‘내가 공주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사람들이 자꾸 중고제와 연관시키려 하지만, 내 소리는 중고제가 아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다고 한다.

일반에게 배포하는 팸플릿에도 “중고제를 대표하는 소리꾼으로는 고수관, 정춘풍, 김재철, 황호통 등의 명창이 있었으나 지금은 국창 박동진옹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박동진옹의 소리는 어느 유파, 혹은 어느 바디를 오롯이 간직하고 있다기보다는, 독창적인 양식의 소리로서 …” 라고 소개하고 있는 실정이다.²⁰⁾ 또한 제자들을 중심으로 ‘박동진제’라는 용어를 조심

18) 박동진옹은 생전에 제자를 함부로 받지 않았다고 한다. 재능과 아울러 인격을 살핀 후에 제자로 받아들였던 탓에, 배우러 왔다가 발길을 돌린 경우도 많다고 한다.

19) 김영운의 경우, 박동진을 서편제에 속하는 정창업의 계보, 그리고 정춘풍-조학진을 잇는 동편제 양쪽에 모두 포함시키고 있으나, 막상 중고제와의 계보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영운, 「음악·무용 분야 전승 유파 지정의 검토」, 문화재관리국, 1996, 『무형문화재 효율적 관리방안 세미나』 발표 원고.

20) 팸플릿의 이 부분은 박동진옹과 상의를 거쳐 제자들이 수정한 것이라 한다.

스럽게 쓰기도 한다.

중고제의 전통과 박동진의 판소리와 관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지금은 끊어진 것으로 평가받는 중고제 판소리의 실체에 대한 조사·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특히 중고제 판소리를 잇는 고수관의 경우, 만년에 공주에 머물면서 많은 활동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을 덧붙이는 바이다.

- 대표적인 인기종목에 속하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대상임
- 최근 예능 보유자가 타계하였으므로, 후계자의 지명이 시급한 현안문제에 속함 (판소리의 경우만 하더라도, 보유자 사망 후 후계자를 선정하지 못한 사례가 많음)
- 현재 일부에서는 박동진을 중고제의 명창으로 보아, 충청도 판소리를 대표하는 인물로 부각시키려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은산별신제

은산 별신제는 1958년 제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했으나 수상하지 못하였다. 1965년에는 백제문화제가 관 주도로 바뀌었는데, 은산별신굿이라는 이름으로 제의 분야에 참여하여 부각을 받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²¹⁾ 1966년 중요무형문화제 제9로 지정되었다. 1986년에는 은산별신제보존회가 인정되었다. 2002년 현재 보유자 3명, 전수교육조교 3명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수자는 13명, 전수생은 5명이다. 지정 현황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현재 은산별신제는 백제부흥운동에 대한 위령제로서의 성격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은산은 조선시대 역말[驛村]이면서, 저산팔읍(荳産八邑)을 대표하는 장시(場市)였던 곳이다. 별신제(別神祭)의 경우, 어촌의 풍어제 또는 장시를 배경으로 지내는 제례인 경우가 많다.

21) 이양수, 1969, 『은산別神考』, 부여향토문화연구회.

충청남도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개선방안

[표 3] 은산별신제 지정 현황

제9호 : 은산별신제(恩山別神祭 1966.2.15. 지정)						<보유자 : 3, 전수교육조교 : 3>	
보유단체명칭			인정일	대표자		주소	
은산별신제(恩山別神祭) 보존회			1986.11. 1	宋炳鎰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111 ※ 은산별신제 전수교육관 건립 (1990년, 단독)	
구분	성명	생년월일	성별	기·예능	인정일	주소	
보유자	(故)崔東錫	'23.11. 3	남	火主	'90. 5. 8	'97. 4.19. 사망	
보유자	車鎮龍	'15. 6. 8	남	大將	'87. 1. 5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111-38	
보유자	黃南姬	'37. 3.12	여	巫女	'98. 6. 5	충남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 174	
보유자	朴昌圭	'32. 9.15	남	火主	'98. 6. 5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143	
조교	宋炳鎰	'50. 7.27	남	火主	'85. 7. 1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143	
조교	徐基成	'35.10.13	남	상쇠	'01. 6.27	충남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143	
조교	李一九	'47. 4.10	여	巫女	'01. 6.27	충남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 100	

따라서 은산별신제의 경우, 이필영의 지적처럼,²²⁾ ‘백제 이념의 표상으로 새로운 역사만들기와 결부되면서, 조선 후기 또는 일제 초기의 역사적 환경을 이루었던 저산팔읍이라는 모시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장시라는 요소는 퇴색해버렸다.’는 지적은 타당성을 갖는 견해이다.

1960~1970년대 이후, 은산 별신제가 백제부흥운동 당시의 전물장졸의 위령제로 윤색되었고, 이 경향은 최근 문화재연구소의 각색과 연출에 의하여 고착화되고 있음은 이미 지적한 바가 있다.²³⁾

이와 더불어 이필영이 지적한대로, 은산 별신제에서 놀이문화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화장(紙花匠)과 특유한 ‘백배가락’ 등이 무시되고 있음은 또 하나의 분리 지정의 사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지화장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관찰하고 부분적이나마 직접 참여하기도 했던 당사자가 생존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조사의 필요성이 크다.²⁴⁾ 아울러 의례로서의 성격이 강조되면서 엄숙함을 강조하는 나머지, 장터 민속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흥겹고 신명나는 부분이 탈락되었음도 지적하고 싶다.

22) 이필영, 2002, 『은산별신제』, 화산문화; 이필영, 2003, 「무형문화재 정책의 근원적 문제」, 『역사민속학』 제16집. 이필영의 단행본은 문화재연구소에서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의 하나로 기획한 것으로, 향후 관련 전공자들의 재조사에 의하여 지정과정에서의 오류가 상당 부분 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필영의 『은산별신제』을 인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주를 달지 않는다. 한편 장터 민속으로서의 성격이 퇴색하고, 백제라는 충청남도의 역사적 정체성에 입각한 왜곡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전 연구에서 이미 지적한 바가 있다. 오석민, 2002, 『충청남도 전통민속자원의 실태 및 관리현황』, 충남발전연구원.

23) 오석민, 2002, 『충청남도 전통민속자원의 실태 및 관리현황』, 충남발전연구원.

24) 오석민, 2002, 『충청남도 전통민속자원의 실태 및 관리현황』, 충남발전연구원. 현재 은산 별신제의 종이꽃은 편의상 삼층사로 고정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 가운데 많은 부분은 2003년 실시된 『중요무형문화재 단체종목 전승실태조사 및 지원관리방안 연구』에서 지적되었으며,²⁵⁾ 이와 관련하여 2003년 문화재청에서는 “은산별신제 등은 지정 당시에 원형이 훼손됐거나 정확한 원형을 찾을 수 없는 종목이므로, 보고서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적극 개선하는 쪽으로 (무형문화재 정책을) 손질할 것”이라는 의견을 공표하기도 했다.²⁶⁾

- 별신제가 행해졌던 사회적 배경, 즉 저산팔읍의 대표적인 시장이며, 상인들의 후원이 많았던 사실을 고려하지 못하였음
- 현재 백제부흥운동의 위령제로서의 성격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윤색에 대해서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종이꽃·백배가락 등 별신제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문화재 지정에서 제외되었음
- 2003년 문화재청으로부터, 원형 훼손 또는 변형의 대표사례로 지목됨

3) 한산 모시짜기

모시는 조선 후기 저산팔읍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1960년대 후반 한산면 일원에서 가장 활발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²⁷⁾ 저산팔읍 일원의 모시 생산과 유통, 그리고 관련 의례 및 놀이 가운데 직조기술만이 1967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전수교육관으로는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도 지정 무형문화재 2종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1991년 착공하여 1993년에 준공되었다. 현재 기능보유자 2명, 전수교육조교 2명이 인정되고 있다. 그 현황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25) 문화재청·한국역사민속학회, 2003. 2, 『중요무형문화재 단체종목 전승실태조사 및 지원관리방안 연구』.

26) 연합뉴스, 2003년 3월 10일자.

27) 일제 시기까지도 모시장 가운데 은·홍산이 가장 컸음은 문헌자료와 면접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러 다른 지역은 쇠퇴하고, 그나마 한산을 중심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모시산업의 쇠퇴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으나, 저산팔읍의 전체적인 쇠퇴과정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1970년대까지 이 일대의 보부상들이 공동 행사를 치렀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그 당사자들이 생존한 동안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개선방안

[표 4] 한산모시 지정 현황

제14호 : 한산(韓山)모시짜기(1967.1.16. 지정) 한산모시짜기 전수교육관 건립('93년, 공동)						<보유자 : 2, 전수교육조교 : 2>
구분	성명	생년월일	성별	기·예능	인정일	주소
보유자	文貞玉	'28. 9. 9	여	모시짜기	'67. 1.16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159
보유자	方蓮玉	'47.12.16	여	"	'00. 8.22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산 23
조교	朴承月	'51.10.25	여	"	'00. 8.22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310
조교	高分子	'55. 8. 3	여	"	'00. 8.22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151

한산모시의 문화재 지정의 경우, 우선 관련 전문가로부터 중복 지정 및 분리 지정의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후술하듯이, 모시짜기에 사용되는 바디가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88호로 지정되었으며, 또한 모시짜기 자체가 충청남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길쌈놀이 또한 별도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²⁸⁾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모시 관련 문화재 현황은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한산모시 관련 충청남도 문화재 지정 현황

번호	명칭 (지정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기·예능	인정일	주소
1	韓山 세모시짜기 (74. 8.31)	羅相德	'34.10. 1	여	細모시짜기	'74. 8. 31	한산면 동산리 458
13	舒川 苧産八畝 길쌈놀이 (71. 7. 9)	李漢秀	'31. 5.23	여	指揮 및 장고	'74. 8. 31	한산면 호암리 147
		具滋弘	'25. 7. 2	여	指揮 및 모시감별	'92. 12. 8	한산면 동산리 109

이러한 경우는 여타 사례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예산 집행 등에 있어서 논란이 여지는 있겠으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무조건 문제로 지적할 것만은 아닌 듯하다.

문제는 오히려 분리지정의 문제이다. 모시 직조와 관련 길쌈놀이는 하나의 '문화복합(culture complex)'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지정됨으로써, 전혀 별개의 종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²⁹⁾ 이는

28) 길쌈놀이의 경우, 1982년 제23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충청남도 대표로 '저산팔음길쌈놀이'라는 이름으로 출전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1986년에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1991년 7월 9일 도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었다.

29) 분리 지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지적이 있어 왔다. 김영운, 「음악·무용 분야의 전승 유파 지정의 검토」, 문화재관리국, 1996, 『무형문화재 효율적 관리방안 세미나』

활용 가능성의 폭을 제한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불협화음이나 갈등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모시는 예전부터 충청남도 서남부 일원의 특산물로서, 그 주요 생산·유통 권역을 저산팔읍(苧産八邑)이라는 통칭으로 불려질 만큼 널리 알려진 상품이다. 그 유통은 저산팔읍상무사에 의하여 거의 전담되었다. 그리고 부여-정산-홍산-임천이 1구(一區)가 되고, 한산-서천-비인-남포가 또 다른 1구가 되었으며,³⁰⁾ 격년으로 임원을 냈으로써 상권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기도 했다.³¹⁾

앞서 은산별신제를 논함에 있어서, 별신제를 지낼 때 상무사의 후원이 컸으며, 그로 인하여 별신제 대장의 역할을 상무사 출신의 재력가가 맡기도 했음을 밝힌 적이 있었다. 즉 중요무형문화재인 은산별신제와 한산모시짜기, 그리고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저산팔읍길쌈놀이는, 모두 모시 생산과 유통을 배경으로 하는 전통문화자원인 셈이다.

현재 한산모시짜기와 저산팔읍길쌈놀이의 경우, 전시관을 같이 사용하는 등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은산별신제 및 (저산팔읍)상무사 관련 유품,³²⁾ 나아가서 정산 미당장의 미륵제와 장승제(비지정)와의 연계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내포제 시조의 경우에도, 저산팔읍 상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제강점기 은산별신제에 쓰이는 종이꽃[紙花]은 정산 미당장에 위치한 해평 윤씨의 집에 유숙하면서 제작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하며, 또한 그 가게의 방계 친족원이 내포제 시조를 불렀던 인물이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그 가옥 역시 최근 문화재로 지정된 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입각하여 볼 때, 저산팔읍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저산팔읍과 관련한 문화재 지정 현황은 아래의 [표 6]과 같다.

발표 원고.

30) 정승모의 글에는 정산 대신에 은산으로 되어 있다. 이는 ‘은·홍산(恩鴻山)’이라 할만큼 은산장의 비중이 컸던 까닭에 발생한 착오로 보인다. 정승모, 1992, 『시장의 사회사』, 웅진. 인터넷 자료는 물론, 저산팔읍길쌈놀이를 구성함에도 부여 대신 보령으로 된 경우가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류임을 지적해두고 싶다.

31) 이훈섭·황선민, 1990, 『보부상 연구』, 보경문화사.

32) 지금의 상무사 관련 유품 외에도 추가적인 유물이 발굴될 여지는 충분하며, 관련 의례나 놀이도 복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서천군에서 오래도록 공무원 생활을 한 노박래에 의하면, 1970년경까지 庇仁 등지에서 상무사 회원들이 공동행사를 한다는 동향보고가 있었다고 한다.

충청남도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개선방안

[표 6] 저산팔음 관련 충청남도 문화재 지정 현황

구 분	번호	명 칭	건 수	保 有 者	所 在 地	指 定 日
국가 지정 重要民俗資料	30	裸負商遺品(1)	一括 (4種8點)		扶餘邑 東南里 山16-1	73. 7.16
		裸負商遺品(3)	一括 (4種107點)		林川面 塔山里 546	80.11.29
도 지정 무형문화재	17	內浦制時調		金元實	窺岩面 內里 460	96.11.30
도 지정 민속자료	18	청양윤남석가옥			장평면 미당리	

- 조선 후기 이후 저산팔음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모시의 직조기술임
- 현재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한산 세모시짜기가 중복 지정
- 모시 바디를 제작하는 바디장과 서천 저산팔음길쌈놀이의 경우는 분리 지정의 사례로 지목되고 있음
- 국가 지정 보부상유품, 도 지정 내포제시조와 청양윤남석가옥도 저산팔음 시장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화재임
- 미지정의 미당의 미륵제와 장승제 또한 관련이 있는 민속에 속함

4) 大木匠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대목장은 모두 4인이다. (아래의 [표 7] 참조) 그 가운데 전홍수와 최기영은 전수교육조교가 없는 상황이다.

[표 7] 대목장 지정 현황

제74호 : 대목장(大木匠, 1982. 6. 1. 지정)						<보유자 : 4, 전수교육조교 : 3>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기·예능	인정일	주 소
	故裊喜漢	'08. 6.19	남	大木	'82. 6. 1	'97.11. 5. 사망
보유자	申鷹秀	'42. 4. 4	남	大木	'91. 5. 1	서울 강남구 개포동 646-1 경남(아) 9-707 강원 강릉시 입암동 21-45 (유림목재)
보유자	高澤永	'14. 7.13	남	大木	'97. 3.24	전북 부안군 동진면 동진리 564
보유자	田興秀	'38.11. 8	남	大木	'00. 8.22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동리 13
보유자	崔基永	'45. 2.23	남	大木	'00. 8.22	서울 강북구 미아9동 134-93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685-1 주 참보특수목재

그러나 현재 고가를 비롯한 많은 건조물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문화재 보수 등 사회적 수요도 많은 편이다. 따라서 대목장 전수생의 충원은 언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대목장 기능보유자 4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산군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음
- 문화재로 지정된 건조물 보수와 관련한 수요가 많은 관계로 전통 단절의 우려는 적음
- 현재 전수교육조교가 없는 상태이나, 전통문화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므로, 후계자 양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5) 기지시 줄다리기

1972년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제35호로 지정되었고, 1979년에는 충청남도 지방민속자료 제2호로 지정되었다가, 1982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되었다. 1983년에는 당진군 제1호 사회단체 기지시줄다리기 보존위원회가 등록되었고, 1986년 기능보유단체로 인정되었다. 2002년 현재 기능보유자 3인, 조교 2명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수자 14명, 전수생 3명이 있다. 기능보유자의 지정 분야는 줄 제작, 줄다리기, 당제이며, 이수자의 경우 농악 부문에 1명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지정 현황은 아래의 [표 8]과 같다.

[표 8] 기지시줄다리기 지정 현황

제 75호 : 기지시(機池市)줄다리기 (1982. 6. 1. 지정)					<보유자 : 2, 전수교육조교 : 2>	
보유단체명칭		인정일	대표자	주 소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		1986.11. 1	張東燮	충남 당진군 송악면 기지시리 173-2 기지시줄다리기 전수교육관 건립 (1989년 단독)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기·예능	인정일	주 소
보유자	(故)李禹永	'28. 2.29	남	堂祭, 줄다리기 지도	'82. 6. 1	'00. 6. 6. 사망
보유자	具滋東	'44. 4.17	남	줄다리기	'01. 9. 6	송악면 기지시리 320-2
보유자	張基天	'35.10.19	남	줄 제작	'01. 9. 6	송악면 기지시리 104
조 교	具本元	'49. 1. 4	남	줄 제작	'01. 6.27	송악면 기지시리 340
조 교	劉煒英	'32. 5.17	남	줄다리기	'01. 6.27	송악면 기지시리 295

충청남도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개선방안

기지시줄다리기는 기지시장이라는 장터를 배경으로 활성화되었던 민속놀이이다. 기지시장은 내포지역의 대표적인 집산지로서, 조선 후기 이미 5일에 2회 장이 열릴 만큼 그 규모가 컸던 곳이다.

당시 기지시장에 집산된 물산은 성구미, 안섬, 한진 등의 나루를 통하여 서울 방면으로 이동하였으며, 반대로 서울-수원-발안-안중을 거친 물산은 이들 나루를 통한 후 기지시장을 경유하여 내포 각지로 이동하였다. 특히 한진나루는 1979년 삼교천방조제도로가 완공된 이후에도 얼마 동안 나룻배가 운영되었던 곳으로, 서산·당진 등지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였던 나루였다. 주민들에 의하면, 안섬은 할아버지당이고, 한진당은 큰할미당, 성구미당은 작은 할미당이라 할 정도로 관계가 긴밀하다.³³⁾

현재 이들 나루는 당진항 조성 공사로 인하여 옛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형이 변한 상태이나, 나루와 관련한 당제(堂祭)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안섬 나루의 당제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또한 한진나루의 당제는 지정문화재가 아니지만 내포를 대표한다는 상징성을 고려하여 연계조사가 필요한 대상이다.

[표 9] 안섬나루 당제 지정 현황

번호	명 칭	지정일(인정일)	주 소
35	당진 안섬당제	2001.6.30. (2001.6.30)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안섬마을)

한편 기지시줄다리기의 유래에 대해서는 기능보유자의 조사보고서가 간행된 바가 있는데³⁴⁾ 또한 이를 비판한 단행본이 간행되어 주목을 끈다.³⁵⁾ 기능보유자이기도 한 이우영은 조사보고에서, 기지시줄다리기의 유래와 배경, 당제와 장승제의 현황, 줄 제작과정과 진행방식, 줄다리기에 얽힌 일화, 관련 부대행사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기능보유자는 4년 동안의 현지 조사를 수행하면서, 사실상 무형문화재 지정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이에 대하여 이인화는 1993년 이후 줄다리기 고증 문제를 놓고 주민들과의 불화가 발생하는 양상을 보고 원형의 복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한다.

먼저 기지시 장터에 대한 고증 부분에서는, ‘기지시리’라는 마을 이름이

33) 이인화, 2003, 『안섬 풍어제』, 충청남도당진교육청.

34) 이우영, 1986, 『機池市줄다리기』, 집문당.

35) 이인화, 1999, 『기지시 줄다리기의 재조명』. 객현향토문화연구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의 일이며, 김기호의 “면천군 도사령이었던 안원교가 중흥면 새 장터에 있던 장을 군내 중심지형인 틀못시로 옮겨왔다.”는 등의 제 견해들을 검토하면서, 기지시 장터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수산 산제의 경우, 주민들과의 면접을 통하여 1913년 산제를 시작했으며, 1935년 당집을 지었음을 밝히고 있다.

줄다리기의 유래에 대해서도 김기호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³⁶⁾ ‘1909년 여섯집 마당에서 심심해서 줄을 꼬아 장난삼아 시작했다.’고 하였다. 이어서 3번째와 4번째의 줄다리기는 장소를 옮겼으며, 1936년부터 ‘줄난장’이라는 이름으로 1941년까지 3번의 줄다리를 하다가 중단되었고, 1960년부터 다시 재개하여 1974년까지 6번을 실시하는 등, 1974년까지 총 13번의 줄다리가 있었다고 한다.³⁷⁾ 그리고 ‘난장’이라는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시장이 번성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활성화되었다고 보았다.

씨름대회는 191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1948년부터 ‘줄난장’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씨름난장’이라는 이름으로 상인들이 후원하였다고 하였다. 아울러 장승제는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세워진 것으로 보았다.³⁸⁾

은산별신제와 마찬가지로 2003년 실시된 『중요무형문화재 단체종목 전승실태조사 및 지원관리방안 연구』에서 지정 당시에 원형이 훼손됐거나 정확한 원형을 찾을 수 없는 종목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었으며,³⁹⁾ 문화재청에서는 적극적인 개선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공표하기도 했다.⁴⁰⁾

- 내포 북부 기지시라는 거점 시장을 배경으로 활성화된 민속놀이로서, 아산만의 한진·성구미·안섬 등의 나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관련성이 많은 당진 안섬당제가 도 지정 무형문화재임
- 현재 줄다리기의 명칭과 유래를 포함하여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
- 2003년 문화재청에서 원형 훼손 또는 변형된 대표 사례로 지목됨

36) 김기호, 1981, 『틀무시의 유래』, 당문사.

37) 이와 관련하여 이필영과 오선영은 전승실태조사에서 ‘틀모시(틀못이) 줄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거나, 또는 병행하여 사용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문화재청·한국역사민속학회, 2003. 2, 『중요무형문화재 단체종목 전승실태조사 및 지원관리방안 연구』.

38) 이와 관련하여 이필영과 오선영은 유·불·선이 합쳐진 당제를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하고, 1984년 건립된 장승을 없앨 것을 제안하고 있다. 문화재청·한국역사민속학회, 2003. 2, 『중요무형문화재 단체종목 전승실태조사 및 지원관리방안 연구』.

39) 문화재청·한국역사민속학회, 2003. 2, 『중요무형문화재 단체종목 전승실태조사 및 지원관리방안 연구』.

40) 연합뉴스, 2003년 3월 10일자.

6) 면천 두견주

면천 두견주가 1983년 각 시·도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수합하여 발간한 『전국민속주조사』에서는 충청남도가 추천한 2사례[두견주와 소곡주] 가운데 하나이며, 이에 대해서는 반성의 여지가 크다는 점, 그리고 고급 민속주의 발간을 위하여 증가에서 가전(家傳)되는 술 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조사도 할 필요가 있음은 이미 지적한 바가 있다.⁴¹⁾

면천 두견주는 고려 개국공신 복지겸과 관련한 전설이 전해지는 술이다. 복지겸이 큰 병으로 누웠을 때, 딸 영랑이 당진의 종산(宗山)인 아미산에서 부친의 쾌유를 빌었고, 100일 기도에 감복한 산신령이 진달래꽃을 따서 안쌈(현 면천초등학교 뒤 우물)의 물로 빚어 100일 지난 후에 아버지께 드리고, 두 그루의 은행나무를 심어 정성을 들여야만 나올 수 있다는 산신령의 계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⁴²⁾ 그 당시 심었다는 은행나무 두 그루는 면천초등학교 교정에 남아 있다. 면천의 특산으로 두견주가 있다는 사실은 문헌에 발견되기도 한다.⁴³⁾

하지만 다른 지역의 명주와 마찬가지로, 일제시대, 그리고 1963년 정부의 양곡주 제조금지조치로 전통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1983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문화재관리국에 전통 민속주로 추천되었고, 1986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다. 1989년 1월에 기능보유자 박승규에 의하여 면천면 성상리 693-1번지(면천초등학교 바로 옆)에 면천두견주 전수제조장이 지어졌고, 이듬해 4월 26일에는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 상품화되기에 이르렀다.

두견주는 누룩, 찹쌀, 멥쌀에 진달래향을 가미한 순수 발효주로서, 『동의보감』에 신경통·부인냉증·요통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징으로는 담황갈색의 점성이 있으며, 『아지라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음력 정월에 꽃술용 누룩을 준비해서 밑술을 빚어놓고, 진달래가 만개할 때 꽃잎과 술밥을 다시 비벼 넣는 과정을 거

41) 오석민, 2002, 『충청남도 전통민속자원의 실태 및 관리현황』, 충남발전연구원.

42) 안쌈은 옛 객사터에 있는 샘으로, 1992년 복원한 후에 지붕을 씌워서 보호하고 있다. 한편 『한국지명총람』에는 복지겸의 아들이 꿈의 계시를 받아 승가암에 핀 두견화를 따서 안쌈의 물로 술을 빚어 아버지에게 드리고, 백일 기도를 올려 병이 나았다고 하며, 다만 딸 愛娘은 은행나무를 심은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은행나무는 복지겸의 장독대가 있던 자리라는 전설이 전해진다고 하였다. 심정보·이달훈·강종원, 1999, 『면천읍성』, 대전산업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당진군.

43) 김윤식, 『雲養集』.

제 3 장 충청남도의 문화재 지정 및 관리 현황

친다. 다시 삼칠일이 지나면 심지불을 술독에 넣어 완전히 익은 것을 확인한 연후에 비로소 먹는데, 보존기간은 6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한편 두견주는 ‘되강주’라고도 하는데, 이는 진달래꽃과 비슷하나 독이 있는 철쭉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 한다. 현재 문화재 지정 현황은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면천두견주 지정 현황

제86호 : 향토(鄕土)술담그기					<보유자 : 0, 전수교육조교 : 0>	
제86-나호 : 면천두견주(沔川杜鵑酒, 1986.11. 1. 지정)						
성명	생년월일	성별	기·예능	인정일	주소	
故朴昇達	'37. 6.26	남	沔川杜鵑酒	'86.11. 1	'01. 8.19. 사망	

면천 두견주의 경우, 현재 기능보유자가 공식으로 남아 있다. 상품화에 성공한 만큼 당장 전통 단절의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판매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못한다면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1983년 전국적으로 실시된 민속주조사에서 충청남도에서 추천한 2종 목 가운데 하나임
- 면천 태생의 고려 개국공신 복지겸과 관련한 전설이 전해짐
- 2001년 기능보유자가 타계하였음

7) 바디장

모시 제작에 사용하는 바디를 제작하는 기능 부문이다. 1988년 중요무형문화재 제88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기능보유자 1인, 전수교육조교 1인을 인정하고 있다. 그 현황은 아래의 [표 11]과 같다.

[표 11] 바디장 지정 현황

제88호 : 바디장(1988. 8. 1. 지정)				<보유자 : 1, 전수교육조교 : 1>		
구분	성명	생년월일	성별	기·예능	인정일	주소
보유자	具鎭甲	'17. 4. 5	남	바디제작	'88. 8. 1	충남 서천군 한산면 종지리 307
조교	吳東根	'46.10.29	남	"	'96. 2. 1	충남 서천군 서천읍 두왕리 3

충청남도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개선방안

바디장은 1994년부터 취약 종목으로 분류된 경우로서, 때로는 문화재 지정 자체에 대하여 회의적인 경우도 많다. 모시를 제작할 경우, 특별히 가는 보름새가 필요하여, 무명이나 명주보다 훨씬 가늘고 세밀한 바디가 필요하였다.

1967년 한산 모시짜기가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되었으므로, 중복 지정 또는 분리 지정의 사례로 지목될 소지가 많다. 궁극적으로 저산활읍에서 모시의 생산·직조 등과 연관된 문화현상의 한 부분, 특히 직조 기술과 직접 관련된 공예 부문이므로, 통합 지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종목으로 판단된다.

- 모시 제작에 필요한 바디를 제작하는 기능으로,
-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기는 하나, 문화재 지정 대상으로서 타당한 종목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기도 함
- 한산 모시짜기의 일부분으로 분리 지정되었다는 논란도 있음

제2절 종목별 관리 현황 및 문제점

1) 판소리

판소리는 무형문화재 가운데에서도 가장 전수활동이 활발한 분야에 속한다. 더욱이 대학교의 국악과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공연에도 많은 청중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전통의 단절을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판소리에 대한 수요층은 전라도와 서울·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보유자 자신이 생전에 느꼈던 것으로, 고향에서 하는 공연에 대하여 관중의 호응이 크지 않다고 말하였고, 종종 관중의 시선을 모으기 위하여 파격적인 진행을 하였다고 한다.

현재 박동진의 출생지 공주시 무룡동의 전수관을 중심으로 전승 및 공연 활동이 활발하며, 충청남도와 공주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7월 예능보유자 박동진이 사망하였고, 현재 그 전수생(보유자후

제 3 장 충청남도의 문화재 지정 및 관리 현황

보 1인, 전수교육조교 1인, 이수자 2인) 가운데 전수회관을 배경으로 활동하는 전수생은 1인이며, 나머지 3인은 주 활동무대는 서울·수도권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박동진 판소리의 전승은 끊어질 우려는 없으나, 공주와의 연고가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무형문화재의 경우, 보유자 사망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보유자의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으며, 판소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궁가 보유자 박초월이 1978년, 춘향가 보유자 김순옥(예명 김소희)이 1995년, 또 다른 춘향가 보유자 김여란이 1983년, 흥보가 보유자 강맹근(예명 강도근)이 1996년에 사망하였으나, 2003년 현재까지 그 뒤를 잇는 보유자가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

후계자를 선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문화재청에 의하여 후계자로 인정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춘향가의 김연수가 1974년 사망하였으나 후계자 오정숙은 1991년에, 심청가의 정권진이 1986년 사망하고 후계자 성장순과 조상현은 1991년에, 흥보가 박록주가 1979년 사망하고 후계자 한귀례와 박정자는 2002년에, 적벽가 박봉술이 1989년 사망하고 후계자 송순섭은 2002년에 비로소 공식적으로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현재 박동진의 사후 더 많은 사람들이 박동진판소리전수관을 찾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저명 인사의 타계 이후, 일시적으로 타계한 인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때문이라 판단된다. 과연 한국 현대 판소리계의 대표주 자격이었던 보유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내방객이 증가할지는 미지수라 할 것이다.

더불어 문화재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예능보유자가 없는 상황에서 판소리의 전수교육, 공연,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등 관련 활동이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보유자의 사후 치뤄지는 제4회 박동진판소리 명창·명고 대회에서는 다소의 불협화음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충청남도와 공주시에서는 박동진을 잇는 보유자를 선정하는 데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지원하고, 그 후계자가 공주시 박동진판소리전수회관을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판소리의 경우, 전수교육은 단지 해당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 의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만큼 전사회적인 관심이 큰 국악분야이다. 박동진판소리전수관에서도 전수교육은 활발한 편에 속한다. 특별한 행사가 없는 경우

충청남도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개선방안

에는 거의 매일 수강생들이 찾고 있다. 2003년 현재 유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생 및 일반부를 구분하여 개별 교습을 실시하고 있다. 판소리 체험교육은 40명을 기준으로 하여 가능하며, 특히 공주시의 시티투어 프로그램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가장 높은 호응도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2003년 현재 현재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의 코스는 다음과 같다.

<제1코스>

공주관광안내소 → 공주관광안내센터(영상홍보관) → 무령왕릉 → 고틀루국민관광단지(곰사당, 선화당) → 종식(공산성인근) → 국립공주박물관 → 우금치전적지 → 임립미술관 → 공주민속극박물관(전통놀이체험) → 웅진교육박물관 → 공산성 → 웅진성수문병근무교대식 → 백제의상체험

<제2코스>

공주관광안내소 → 공주관광안내센터(영상홍보관) → 무령왕릉 → 국립공주박물관 → 종식(공산성인근) → 충남산림박물관 → 박동진판소리전수관(판소리체험) → 웅진교육박물관 → 웅진성수문병근무교대식 → 백제의상체험

그 외에도 논산시의 대근중학교의 경우, 2000년부터 1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한 반씩 토요일 3시간에 걸친 판소리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주대부속중학교에서도 2002년부터 2시간에 걸친 판소리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전 한남대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외국인 어학연수원 학생, 사할린 모국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 건양대·목포교육대학의 판소리 강연, 서울 등지의 단체 참관, 삼림청에서 주관한 ‘숲속 음악회’ 출연(2002년), 백제문화제 공연(2002년), 고마나루 축제 공연, 아시아1인극제(2001년, 2003년) 등 부정기적인 공연·강연·체험 등의 기회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⁴⁴⁾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공주 전국 판소리 명창·명고 대회’이다.⁴⁵⁾ 충청남도·공주시·KBS 공주방송국이 공동 주최하고 박동진판소리 선양회가 주관한 제1회 대회는 공주문예회관에서 2000년 11월 21~22일간

44) 박동진판소리전수관 측에서는 최근에야 활동 내역을 기록하기 시작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45) 박동진의 사후에 개최된 2003년 11월 19~20일간 개최된 제4회 대회는 박동진을 기리는 뜻에서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로 이름을 바꾸어 개최되었다.

제 3 장 충청남도의 문화재 지정 및 관리 현황

개최되었다. 판소리 부문은 명창부, 일반부, 학생부(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유아부로 구분하고, 고수 부문은 명고부,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로 나뉘어 총 32,400천원 (판소리 17,600천원, 고수 14,800천원)의 시상금을 내걸었다.

축하 공연으로는 국악관현악 협주, 부채춤, 판소리(박동진, 성창순·오정숙), 남도민요(이일주, 신영희, 박계향, 이임례, 이명희, 김소영, 이난초, 주순자), 경기민요(목계월, 이은주, 유창, 남은혜, 이소정), 승무(이애주), 장고춤 등이 있었다.

제2회는 2001년 9월 8~9일간 열렸다. 시상금은 총 29,100천원(17,600천원, 11,500천원)으로 다소 줄었으며, 축하공연도 국악관현악, 경기민요, 북춤, 판소리, 풍장으로 축소되었다.

제4회 대회는 예능보유자가 작고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대회기간은 11월 19~20일간이며, 주최와 주관, 장소와 경연 부문은 전과 마찬가지로이다. 시상금은 28,600천원(17,100천원, 11,500천원)을 다시 감소하였다.

보유자가 작고한 2003년 후반기에도 전승교육은 활발한 편이다. 국악계와 교습생들의 왕래는 여전한 편이며, 오히려 고인을 추모하기 위하여 찾는 경우도 있어서 내방객의 숫자도 줄지 않고 있다.

보유자가 사망하였고, 그에 불구하고 내방객이 계속 찾는다는 사실과 연관하여, 최근 박동진 유물전시관을 건립하고, 선생이 사사받았던 명창들의 기념비를 제작하려는 움직임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거기에는 선생의 생전 모습을 추억하려는 내방객들의 요구가 큰 몫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불협화음도 발생하는 듯하다. ‘선생은 생전에 이동백,⁴⁶⁾ 김성옥,⁴⁷⁾ 고수관,⁴⁸⁾ 정정렬,⁴⁹⁾ 정춘풍⁵⁰⁾ 등 5인을 기념하고 싶어했다.’고 하는데,⁵¹⁾ 일부에서는 중고제의 전통을 부각시키려면 알려지지 않은 중고제 가문의 인물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유물관의 경우, 충청남도의 지원 의사가 밝혀졌으므로, 추진 가능성이 큰

46) 충청남도 서천군 중천면 도만리에서 출생한 동편제의 명창으로, 새태령으로 이름을 날렸다.

47) 김성옥은 박동진이 처음으로 판소리 교육을 받은 김창진의 조부로서, 진양조를 창시한 중고제 판소리의 대표 가문의 명창이다.

48) 충청남도 서산군 해미에서 태어났고, 말년에는 공주에서 살면서 판소리를 지도했다고 전하는 소위 전기 4명창(송홍록, 고수관, 염계달, 모홍갑) 중의 한 사람이다. 중고제 판소리의 계보를 잇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49) 서편제에 속하는 명창이다.

50) 중고제를 잇는 명창으로 평가를 받으며, 박동진은 그 제자 조학진에게서 사사를 받았다.

51) 애제자와의 면접 결과임.

충청남도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개선방안

편이다. 그러나 단순히 후손 또는 제자들이 소장한 유품의 목록을 확보하는 데에 그치고 있으므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을 관련 유품에 대한 조사와 정리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 대표적인 인기종목에 속하므로, 현재로서는 전승 단절의 우려는 없음
- 보유자의 타계 이후에도, 서울·수도권이나 전라도에는 뒤지지만, 전수교육과 일반인의 방문 및 교육이 활발한 상태임
- 그러나 유명인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으로 고조된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전수생 4인 가운데 공주 또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경우는 1인이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임
- 전수교육이 활발할 뿐만 아니라, 최근 명창·명고대회를 개최하고, 공주시의 시티투어에 전수관 방문이 포함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종목임
- 또한 기념비나 유물전시관 건립이 계획 또는 추진 중에 있음
- 그러나 보유자 타계 후 운영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러한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은산 별신제

현재 별신제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은산장은 쇠퇴하여, 명맥마저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은산장은 모시를 특산물로 하는 저산팔읍 상권 가운데에서 홍산장(鴻山場)과 더불어 핵심적인 장시에 해당하였다.⁵²⁾ 더욱이 1911년에 개발되어 1926~1937년까지 성황을 이루었던 구봉금광(九峰金鑛), 1930년대 이후 호황을 누렸던 중천중석광산(中川重石鑛山)의 배후 장시로 성시를 이루었다. 1935~1937년에는 윤년에 한하여 지내던 별신제를 매년 지내었고, 또한 별신제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52) 오석민, 2002, 『충청남도 전통민속자원의 실태 및 관리현황』, 충남발전연구원.

당시 별신제를 지내려면 쌀 100석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었다고 한다. 그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은산장의 상인을 비롯한 지역 유력자의 지원은 필수적이었다. 1930년대 후반의 자료에 의하면,⁵³⁾ 당시 총 비용 약 1천원 가운데, 40% 정도를 상인·놀이패 등으로부터 기부금 형식으로 걷었다고 한다.

이처럼 상인들의 후원이 절대적이었던 까닭에, 상무사(商務社) 출신의 재력가가 별신제에서 가장 중요한 대장(大將)의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⁵⁴⁾ 따라서 저산팔읍상무사를 중심으로 하는 상인들은 10여 일 때로는 1달 가까운 기간 동안 난장을 개설하는 조건으로 후원해주었고,⁵⁵⁾ 별신제 행사만이 아니라, 놀이패들을 불러들여서 그야말로 성시를 이루었다고 한다.

한편 1940년대에는 일제가 치안확보·식량부족·낭비 등을 이유로 허가를 받기 힘들었고, 그 결과 1947년경에는 산신당을 중수해야 할 정도로 건물이 퇴락했으며, 한국전쟁 기간 동안 중단되었고, 1959년을 마지막으로 중요무형 문화재 지정 전까지는 별도의 재원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별신제를 거행하지 못하였다. 이는 은산장의 쇠퇴와 맥을 같이 하는 바, 그 이후의 행사는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등의 참가종목 또는 문화재 공개의무에 따른 공연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은산 별신제는 시장민속으로서의 성격, 구체적으로는 저산팔읍시장권에 속하는 주요 민속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은산 별신제와 관련하여 저산팔읍과의 관계를 고려한 경우가 거의 없는 관계로, 이에 대한 고려는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한편 저산팔읍시장권 민속 가운데 한산 모시짜기와 바디장 또한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는 한산 모시짜기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후에 계속하게 될 것이다.

현재 은산별신제는 운영 경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업무를 내지 못하며, 제연 행사 등은 거의 전적으로 행정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마을 청년층의 감소 및 자발적인 참여의 부족으로, 최소한의 인원마저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고등학교 학생과 군인을 동원하여 행사 인원을 보충하

53) 조선총독부, 1972(刊), 『釋奠·祈雨·安宅』, 東京:國書刊行會.

54) 商務社는 조선 말 보부상의 공식조직이며, 이 경우에는 荊産八邑商務左社를 말한다. 이 필영에 의하면, 상무사 출신의 재력가가 제의 총괄하는 대장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는데, 그는 일부 임원과 참여자의 숙식과 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하였다. 이는 은산 별신제와 저산팔읍상무사와의 긴밀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며,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55) 2002년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사실이다. 제보자 尹男石(당시 65세, 청양군 장평면 미당리 거주).

충청남도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개선방안

는 실정이다. 은산 별신제에서 시행한 관련 행사 및 시설보수 현황과 그 비용의 내역은 아래의 [표 12]와 같다.

[표 12] 은산별신제 공연 및 지원금 현황

일시	관련행사	시설보수현황
1969. 3.15.	大祭 거행 (보 40만원, 자 20만원)	
1976. 4. 5.	大祭 (군, 자)	
1977. 2.15.	小祭 (진 30만원, 자)	
1978. 3.24.	大祭 (군 100만원, 진 30만원)	
1979. 2.15.	小祭 (진 30만원, 자)	
1980. 3.20.	大祭 (국 15만원, 진 70만원, 군 150만원, 자)	
1981. 2.19.	小祭 (국 50만원, 진 100만원, 자)	
1982. 3.31.	大祭 (국 50만원, 진 100만원, 군 500만원, 자 50만원)	
1983. 2.28.	小祭 (국 50만원, 진 100만원, 20만원, 자 75만원)	
1984. 4. 2.	大祭 (국 50만원, 진 100만원, 군 400, 자 470만원)	
1985. 3. 5.	小祭 (국 50만원, 진 100만원, 군 20만원)	
1986. 4.30.		地殿石造工事 (군비 300만원)
1987. 2. 9.	小祭 거행(보 40만원, 자 20만원)	
1988. 3.25.		학당굿터 포장 (군 800만원)
1988. 3.27.		별신당 지붕 수리 (군 500만원)
1988. 4. 1.	大祭(국 100만원, 군 400만원, 진 100만원, 자 500만원)	
1989. 2.18.	小祭(국 50만원, 군 100만원, 진 100만원, 자 300만원)	
1990. 3.15.	大祭(국 150만원, 군 400만원, 진 50만원, 자 300만원)	
1990. 9. 8.		전수회관(137평), 별신당 증축(7.35 평 (6억4,800만원))
1991. 3.15.	小祭(국, 군, 진)	
1991.12.30.		계시관 설치(도지원금 1천만원)
1992. 3.29.	大祭 (국 200만원, 군 500만원, 도 100만원, 진 150만원, 자 500만원)	
1993. 2.12.	小祭 (국 170만원, 군 200만원, 도 50만원, 진 150만원, 자 300만원)	
1993. 9. 9.	백제문화제에서 본제와 상당굿 시연 (지원금 1,500만원, 자 3,800만원)	

* 자 : 자체 주민 부담, 진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국 : 문화재관리국, 군 : 부여군청,
 보 : 국가보조금, 도 : 도진흥기금

현재 은산 별신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현재 전무한 상황이며, 향후 이와 관련한 계획도 수립한 적이 없다. 매년 문화재보호법상의 공개 의무에 따라 매년 재연행사를 벌이고 있으며, 백제문화제에서 일부 행사를 재연하고 있다.

현재 기능보유자가 고령에 속하나, 40대의 이수자 또는 전수장학생이 이어지고 있어서 시급한 전승의 단절 우려는 없다. 다만 자발적 참여라기보다는

기존 참여자들의 간곡한 권유에 따라 간여하기 시작하다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밟게 된 것으로, 점차 마을 주민들의 관심이 멀어지는 상황에서, 향후 개인적 수준의 권유에 의한 충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전수회관은 1998년 이후 군청의 인력 감축의 여파로 보존회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은 군청에서 부담하고 있다. 현재 전시실은 관련 비품을 보관하고 있어서 창고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은산별신제의 경우, 공동체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본래 지역의 공동의례였으므로 주민 참여가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참여 집단은 적으며, 관련 행사 또한 단순하고 소규모이다. 젊은 층의 참여가 저조하며, 주민들도 단순한 연례행사로 여기는 상황으로, 음식 봉송 꾸러미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학술적 차원에서 찾아오는 학자와 학생, 그리고 방송 관계자들이 더 많은 실정이다.

현재 은산별신제 관련 행사는 공개의무에 따른 공연, 그리고 문화제 행사 등에 참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공개 의무에 따른 공연 현황은 앞의 표 <은산별신제 공연 및 지원금 현황> 참조) 특히 부여에서 거행되는 백제문화제에 참가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⁵⁶⁾ 그 현황은 아래의 [표 13]과 같다.

[표 13] 은산별신제의 백제문화제 참가 현황

연 도	참 가 종 목
1993	본제 및 上堂굿
1994	上堂행렬
1995	下堂굿
1996	上堂행사
1998	本祭와 행렬
2000	본제와 행렬
2002	본제와 행렬

공개의무에 따른 공연 행사의 내용을 보면, 본 행사 외에는 다른 향토축제의 프로그램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2002년 대제 실시 당시 행사 내용은 아래의 [표 14]와 같다.

56) 백제문화제는 백제의 고도였던 공주와 부여에서 격년제로 치뤄지고 있다.

충청남도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개선방안

[표 14] 2002년 은산별신제(대제) 행사 내용

구 분	내 용
본 행사	진대베기-꽃받기-상당제-상당굿-하당굿-독산제-장승제
민속 행사	충남국악단(사물놀이, 부채춤, 화관무, 민요, 판소리), 군산 오성문화제전위원회(부채춤, 한량무, 장구춤, 교방무, 진주검무, 삼고 무, 별신제 혼풀이), 세도두레풍물
부대 행사	노래자랑, 척사대회, 게이트볼, 줄다리기, 배구대회

- 은산장의 쇠퇴에 따라 상당 부분 자생력을 상실한 상황으로, 학생과 군인을 동원하여 행사인원을 충원하는 실정임
- 현재 40대의 전수생이 있어서 당장 전승 단절의 우려는 적으나, 개인적인 권유에 따른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충원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임
- 공연행사가 저조한 편으로, 법령에 따른 의무 공개행사 외에는 백제 문화제에 참여하는 것이 전부임
- 저산팍읍시장권의 대표적인 민속임에도 불구하고, 연계 가능성은 전혀 고려되지 못하는 실정임 (동일한 시장권의 민속에 속하는 한산 모시짜기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에 상술할 예정임)

3) 한산 모시짜기

현재까지 전통 모시생산은 베틀을 이용한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격은 1필에 약 20~60만원에 이를 정도로 고가이며, 따라서 판로가 매우 제한적이다. 2001년 현재 한산 세모시는 약 2만필 정도가 생산되고 있으며,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름철 모시 제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으며, 다만 기계화된 상품과의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뿐이다. 현재로서는 관련 주민들이 주도하여 모시 제품을 기계화할 수는 없으며, 또한 고급 제품으로서의 특화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도 역부족이다.

결국 모시 제품의 생산 자체는 디자이너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며, 다만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축제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저

산팔읍의 전통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다.

한산 모시짜기 종목은 1994년 전승자가 없는 취약종목으로 분류되고 있었다.⁵⁷⁾ 그러나 1998년 이후 최근 한산모시문화제가 활성화되면서, 취약종목으로서의 위기는 넘은 것으로 보인다.

1998년 이전 서천군에서는 한산모시짜기 공연을 저산문화제에 포함시켜 진행하였다. 그런 가운데 1998년 문화관광부의 관광축제로 지정되면서 활성화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비·도비·군비가 지원되는데, 2003년의 경우, 국비와 도비 각 8,000만원, 군비는 1억 4,000만원이었다. 서천군에서는 2004년에도 관광축제로 지정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한산면 지현리에 약 26,000평 대지에, 모시의 제작 전 과정을 배치한 전시교육관 1동(233평), 저산팔읍전수관(71평), 전통공방(137평), 모시각(6평), 소곡주제조장(265평), 기타 상업시설(750평) 등이 건립되어 있다. 전시물로는 모시 짜는 여인상 등 모시관 전시물 약 30점, 향토문화자료 약 250점, 모시 제품 약 60점 등이 있다.

2001년(5월 1~6일)에 실시된 제12회 한산모시제에서는 다채로운 관련 행사가 개최되었다. 다양한 전문분야의 공연과 학술행사, 내방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이벤트 행사로 새벽 모시 시장을 열어 2,000명의 내방객에게 모시와 소곡주 등 기타 특산물을 할인 판매하는 행사도 가졌다. 관련 주요 행사내역은 아래의 [표 15]와 같다.

- 전통 모시생산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고가에 속하여 판로가 제한적임
- 1998년 문화관광부 지정 관광축제로 지정되기 전에는 취약종목으로 분류될 정도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였음
- 1998년 이후 패션 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따라 내방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57) 정병호, 「중요무형문화재 보존관리의 개선방안」, 문화재관리국, 1994. 6., 『중요무형문화재 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

충청남도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개선방안

[표 15] 2001년 한산 모시문화제 주요 행사 내역

구 분	장 소	내 용
전통한복 전시회와 세미나	특별무대	▶ 삼국시대 ~현대까지의 모시옷과 전통한복전시 ▶ 한복 전문가 초청 세미나
세계 섬유 전시회와 세미나	전시실 및 광장	▶ 전시회 및 세미나 ▶ 특히 모시의 활성화 방안 모색
한산모시옷 패션쇼	한산모시관	▶ 전문 디자이너의 모시 패션쇼 일본 유카다 등 관련 주민 158 명이 직접 출연)
모시패션 디자인 공모전	특별무대	▶ 일본·미국·한국 학생의 모시옷 디자인 공모전 개최
저산팔읍 길쌈놀이 시연	광장	▶ 모시 길쌈놀이 재연
모시 길쌈 체험	전수관	▶ 모시 생산(짜기, 짜기, 감기, 매기, 날기), 한산 모시 천연염색, 한산모시옷 입어보기, 모시떡 해먹기 등 ▶ 기능보유자의 직접 지도

4) 大木匠

2003년 현재 기능보유자 전홍수는 한국전통문화학교 초빙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다. 2003학년도의 경우, 1·2학기에 걸쳐 전공선택과목으로 개설한 치목연습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의 대상은 강릉 객사문(국보51호, 강원도 강릉시 용강동 소재)의 치목을 직접 제작·조립하는 과목으로, 강의 장소는 한국고건축박물관이다.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수구분	학년	교과목	학점	강의시간	실습시간	담당교수	강의실
전공선택	3	치목연습	3	1	4	전홍수	고건축박물관

대목의 경우, 현재 대학교의 고건축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이론 교육이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통문화학교 실습을 겸한 기능인도 양성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보수와 관련한 진로가 보장되는 관계로 당장 전통의 단절을 염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홍수는 현재 개인적으로 한국고건축박물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위치는 예산군 덕산면 대동리 산23-1이며, 부지면적은 18,150㎡, 연건평은 3,630㎡에 달한다. 전시관은 모두 3개관이며, 삼국시대~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사찰, 탑, 불상 등 17종의 축소모형, 국보급 문화재 축소모형 등 총 15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 입구 가까운 곳에는 강릉 객사문을 원형 그대로 복원해 놓고 있으며, 향후 양반사대부가옥, 평민가옥, 초가삼간, 중국관, 일본관, 연수원 등 10개소를 건립(50억원)할 예정이다. 2003년 중반까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았으나, 최근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하면서 관람객 숫자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3년 현재 예산군에서 운영하기 시작한 ‘버스 투어’의 방문대상지로 선정된 바가 있으나, 최근 입장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제외되었다. 버스타어 외에 별도 프로그램은 없는 형편이다.

- 전통문화학교에서 실습강좌를 개설하여 후진을 양성하고 있으며,
- 개인적으로 한국고건축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 또한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예산군의 버스타어 코스에 포함되었으나, 2003년부터 운영의 어려움을 들어서 입장료를 징수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방문 코스에서 제외되었음)

5) 기지시 줄다리기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의 정관에 의하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학술 심포지움, 강습회, 수련회, 효자·효부 발굴사업, 유관단체 지원 및 장학교육사업, 불우이웃돕기사업, 홍보사업 및 이와 관련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03년 문화재청의 위임을 받아 실시한 전승실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⁵⁸⁾ 매주 토요일에 전수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학점운영제는 현재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2003년 현재 이수자(김영수)와 전수장학생(이금돈)을 중심으로, 일반인을 위한 풍물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당진풍물연구회,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송악농협주부와 당진웃다리풍물패, 금요일에는 한국시각장애우와 당진풍물연구보존회의 강습이 진행된다. 또한 매년

58) 문화재청·한국역사민속학회, 2003. 2, 『중요무형문화재 단체종목 전승실태조사 및 지원관리방안 연구』.

충청남도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개선방안

여름에는 인천풍물연구회에서 1주일 동안 연수를 한 뒤, 지역주민을 위한 공연행사를 갖는다. 예전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충효교실을 운영하였으나,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전수교육이 활성화되지는 못한 상황으로, 2002년 현재 전수생을 공개 모집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형편이다. 그나마 14명의 이수자를 확보하고 있어서 당장 전승 단절의 염려는 없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큰 줄 꼬기를 담당할 노인들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으며,⁵⁹⁾ 줄 옮기기에 참여할 인원 확보가 현안문제가 되는 형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3년 7월 18일 송악중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줄다리기 시연 때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 점수를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윤년에 행하는 대제(大祭)와 평년의 소제(小祭)의 공개재연행사 외에 기타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는 형편이다. 2001년(3월 29일~4월 1일)과 2002년 실시한 대제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16]과 같다.

[표 16] 기지시줄다리기 재연행사 내용

구 분	내 용		
	2001년(大祭)	2002년(小祭)	2003년(小祭)
기 간	3월 29일~4월 1일		2월 14일~
축원 행사	전야제 (당제 및 용왕제)	전야제 (당제 및 용왕제)	전야제(당제 및 용왕제)
본 행사	줄다리기 대회	줄다리기 대회	줄다리기 대회
민속 행사	풍물 경연, 씨름, 그네뛰기, 궁도대회, 연날리기, 시조경창, 널뛰기, 윷놀이, 민요경창, 새끼꼬기, 삼베짜기	풍물 경연, 씨름, 그네뛰기, 궁도, 연날리기, 시조경창, 널뛰기, 윷놀이, 민요 경창, 제기차기, 투호	농악대회, 궁도대회, 윷놀이, 풍물 초청공연 인천청소년풍물단, 당진풍물보존회), 학생(아기 씨름대회, 짚풀문화, 연날리기, 그네뛰기, 제기차기, 투호, 널뛰기
부대 행사	효자·효부 선발 표창		

최근 대제를 거행할 때에는 1억~1억 5천만원, 소제에는 3천~5천만원의

59) 큰 줄 꼬기는 뱃사람과 같은 능숙한 기술을 요구하였다. 이필영과 오선영은 기지시에서 줄 꼬기에 능숙했던 사람들을 시대별로 정리하고 있다. 문화재청·한국역사민속학회, 2003. 2, 『중요무형문화재 단체종목 전승실태조사 및 지원관리방안 연구』.

제 3 장 충청남도의 문화재 지정 및 관리 현황

경비가 소요된다. 기금은 외부 지원금과 자체부담금이 90:10 내지 85:1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수반한 비용은, 2002년 소제의 경우 44,650천원(국비 5,000천원; 도비 3,000천원; 군비 30,000천원; 자체 부담 6,650천원)이며, 2003년(소제)에는 35,000천원(국비 3,000천원, 도비 2,000천원, 군비 15,000천원)을 예상하고 있다.⁶⁰⁾

이외에도 지금까지 다양한 관련 문화행사에 출연하였는데, 주요 행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7] 관련 행사 참가 현황 (기지사줄다리기)

연 도	행 사 명
1976	백제문화제 (공주)
	백제문화제 시범행사 (대전)
1981	국풍 81 (서울 여의도)
1985	학생의 날 행사 (서울 효창운동장)
1987	충청남도 도민체전 (대전)
1992	충청남도 도민체전 (공주)
1999	전통민속 대보름맞이 문화대축제 (국립민속박물관)
2000	남북통일기원 국민화합 기지사줄다리기 시연(국립민속박물관)
	신성대학 개교 5주년 행사
	서해대교 개통기념축제행사
2001	천안 북일고교 학생축제행사
	온양문화제
	제82회 전국체육대회 식전공개행사
2002	온양문화제
	2002 월드컵축구대회 문화축전공연 (대전 엑스포공원)

향후 보존회에서는 의욕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05년에 줄다리기 전수교육교본 간행할 예정이며, 2003년 2월에는 국제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일본 예화야(刈和野) 줄다리기를 관람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특히 충청남도에서 추진중인 내포문화권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짚풀문화박물관 및 체험장, 민속놀이 체험장, 민속시장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작 내포 동북부지역의 중심 장터였다는 성격은 전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지시에 집산된 물산은 한진, 안섬, 성구미 등의 나루를 통하여 운반되었다. 따라서 도 지정문화재인 안섬당제, 비지

60) 문화재청·한국역사민속학회, 2003. 2, 『중요무형문화재 단체종목 전승실태조사 및 지원관리방안 연구』.

충청남도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개선방안

정의 한진당제 등 나루터, 그리고 기지시 주변 장시와의 관계 등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연계 활용의 가능성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현재 풍물교실 운영 등 활성화된 양상이나, 운영 프로그램이 문화재 자체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적음
- 14명의 이수자를 확보하여 전승 단절의 우려는 적으나, 줄꼬기를 담당할 관련자의 고령화, 줄 운반에 필요한 인원의 확보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백제문화제, 도민체전 등 다양한 행사에 초청되어 공연을 하고 있음
- 2005년 전수교육교본을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내포문화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박물관 등 관련사업을 추진 중임
- 기지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루와 주변 장시에 관한 조사와 연계 활용방안은 전혀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6) 면천 두견주

현재 면천 두견주는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지원책이 없으며, 오히려 이와 관련된 가장 큰 행사는 면천 진달래민속축제이다. 시기는 매년 4월 중 택하는데, 제1회 행사로 2001년 4월 14~15일에 치뤄졌고, 2003년 제3회 행사는 4월 11~12일 동안 개최되었다. 장소는 면천면과 아미산(진달래공원 포함) 일원이며, 면천진달래민속축제위원회(대표 이길조)에서 주관하고 있다.

축제는 진달래 시문학 및 민속, 그리고 진달래 음식, 각종 무대공연, 진달래 관련 전시회로 구성된다. 2001년의 경우, 당시 KBS TV에 인기리에 방영 중이었던 '태조 왕건'에서 복지겸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연기자를 내세워 가장 행렬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제1회 행사의 경우, 축제 경비는 총 59,200천원이 소요되었다.

2004년에는 효심배우기 백일장, 진달래시집출판기념회, 진달래청소년가요제, 효심아가씨선발대회, 한국의 춤과소리, 화전놀이와 진달래술 마시기, 진달래 장대 끝에 세우기, 줄타기공연, 진달래꽃술싸움, 진달래꽃방망이, 국악

한마당, 진달래꽃무덤 조성, 진달래 사진전 등으로 구성되었다.

진달래민속축제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나라 거의 전역에서 진달래 관련 행사가 개최된다는 점이다. 경상도의 경우, 창원의 천주산 진달래축제, 거제의 대금산 진달래축제, 창원의 천주산 진달래축제가 있으며, 경기도 강화의 고려산 진달래축제, 전라도 여수의 영취산 진달래축제 등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전국 주요 산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치뤄지는 철쭉제를 고려한다면 상황은 더욱 어렵다.

물론 당진군에서는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면천 두견주와 연결시키고, 관련 전설에 등장하는 고려 개국공신 복지겸 장군에 대한 성역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⁶¹⁾ 1998년 당진군의 군화(郡花)를 진달래로 바꾸고, 아미산에 3만평 규모의 진달래동산을 조성하고, 곳곳에 진달래를 식재하는 작업은 당진군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면천 진달래민속축제의 성패는 말할 것도 없이, 차별성의 확보 및 주민의 정체성 확보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다른 지역을 능가할 수 있는 강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 큰 문제라 할 것이다.

나아가서 면천 진달래민속축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면천 두견주의 전승이 성공하였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없다. 다른 민속주가 모두 그러하듯이, 면천 두견주는 상업화의 과정 속에서 다른 민속주와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관 기간이 6개월을 넘길 수 없다는 점은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과제일 것이다.⁶²⁾

61) 당진군에서는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에 복지겸 관련 유적 정비사업을 포함시켜 줄 것을 수 차례에 걸쳐 요구한 바가 있다. 이 사업이 포함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였으나, 한편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또는 족보와 같은 사문서에 근거할 뿐, 철저한 고증과 조사·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포함시키기는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62) 원형 보존의 정신에 어긋난다 할 수도 있으나, 현재 민속주 시장에서 가장 성공한 경우는 백세주와 산사춘 등이다. 사실 민속주가 살아남으려면, 전승은 영상 기록 등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현대에 맞도록 맛을 변화시키고, 유통 기간 동안 용이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 백세주의 성공 비결은 한국 민속주의 공통적인 문제점인 보관 문제를 해결한 데에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 당진군에서는 복지겸의 선양, 면천 두견주의 부각을 위하여 면천 진달래민속축제를 개최하고 있음
- 그러나 전국 각지의 수많은 진달래 관련 행사와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또한 면천 두견주의 성공과 진달래민속축제의 성공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며,
- 따라서 민속주의 생산·유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봄

7) 바디장

현재 모시 생산이 급감한 관계로 상업성은 떨어지며, 한산 모시짜기가 문화재로 지정된 관계로 간간히 주문을 받아 생산하고, 매달 2점 정도를 제작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2003년 실시한 문화재청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전수교육조교의 경우, 제작 도구의 상태가 거칠고 조악하며, 바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전수자로서의 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에 재학 중인 전수자를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할 것을 제안한 상황이다.

한산 모시제에 작품을 내놓고 있으나, 행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일반의 호응도 크지 않은 형편이다.

- 현재 전수교육과 관련한 불화가 보고되었으며,
- 생산품의 판로가 매우 제한적임
- 한산 모시짜기의 부분으로 통합관리가 요망되는 종목으로 판단됨

제 4 장 중요무형문화재 관리운영의 개선방안

그 동안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주무 관청인 문화재청(구 문화재관리국 포함)의 주도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다방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적도 있다.⁶³⁾

그러한 가운데 일부 무형문화재 관련 당사자들은 한국 무형문화재 제도가 모범적인 사례에 속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였고, 1998년 ‘세계 구전 무형문화유산’ 제도를 제안한 끝에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무형문화재 보존 유네스코 국제 연수 워크숍』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그 결과로 유네스코에서 ‘세계 구전 무형문화유산’ 시상 제도를 신설하고 세계 각국에 권장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지적되어 왔고, 향후에도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사실 심우성의 지적처럼,⁶⁴⁾ ‘세계적으로 일본·대만·한국 등 3개국에서 무형문화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자생적인 자기 문화를 향유하는 데에 반하여, 3개국에서는 무형의 전통 자체가 글자 그대로 인멸되고 있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무형문화재의 경우, 이미 존속될 수 있는 토대를 상실한, 이미 과거의 유산에 불과하다. 사실상 무형문화재 제도운영에서의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기인한다.

그러나 역으로 역사적 전통을 지역 정체성으로 승화시킨 국내·외의 사례는 드물지 않거니와, 충청남도라 하여 예외는 아니라고 보고 싶다. 아래의 제언은 이러한 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그런데 본 논의는 충청남도와 관련이 깊은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도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법적·제도적 정비와 관련된 사안은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더욱이 그러한 법적·제도적 정비방안은 충청남도의 중요무형문화재 뿐만 아니라, 전국의 중요무형문화재

63)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4. 6., 『중요무형문화재 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 문화재관리국, 1994. 10., 『중요무형문화재 운영 개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12., 『무형문화재 효율적 관리방안 세미나』; 문화재관리국, 1996, 『중요무형문화재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문화재관리국, 1998. 12., 『21세기를 대비한 무형문화재 전승·보급제도의 발전방향』; 문화재관리국, 1999, 『새 천년을 대비한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 공청회』; 문화재청·한국역사민속학회, 2003. 2, 『중요무형문화재 단체종목 전승실태조사 및 지원관리방안 연구』.

64) 심우성, 1999, 「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제도」, 문화재관리국, 『새 천년을 대비한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 공청회』 발표 원고.

충청남도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개선방안

전체를 대상으로 고려하여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정 과정상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실태조사
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다. 또한 관리운영상의 개선방안의
경우에도, 법적·제도적 정비와는 무관하게 충청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운영상의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소극적인 대안에 그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종합적인 실태
조사에 대한 부분에서는, 기존의 논의에서 제외되었던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정 종목의 재조정 등을 비롯한 법적·제도적
보완과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는 결코 적지 않다. 충
청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리운영상의 개선안 또한, 궁극적으로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겨냥한 것임을 밝혀두는 바
이다.

- 중앙부서와 연관된 법적·제도적 사안은 제외하고,
-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원칙으로 함
 - 현 상황에서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며,
 - 향후 법적·제도적 정비과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제1절 지정 개선을 위한 제언

■ 종합 실태조사의 필요성

모든 연구에 있어서 조사·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함은 지나치지 않다. 예능
보유자 스스로 철저한 고증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니와,⁶⁵⁾ 앞서 언급했듯이 최
근 문화재청에서 2003년 실시한 『중요무형문화재 단체종목 전승실태조사 및

65) 판소리 예능보유자 박동진은 제1회 판소리 명창·명고대회를 개최하는 「인사 말씀」에
서 예산 관계로 철저를 기하지 못했지만, 이런 대회에서는 고증이 필요하다는 말을 넣은
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생각한다면 성급하게 대회가 추진되었음에 대한 질책일 수도
있으나, 평소의 언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신의 소리를 중고제로 몰아가려는 주최측에
대한 비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많다. 「제1회 공주 전국 판소리
명창·명고대회」 (팜플렛) 참조.

지원관리방안 연구』를 토대로 보고서에서 ‘지정 당시에 원형이 훼손됐거나 정확한 원형을 찾을 수 없는 종목’으로 은산별신제와 기지시줄다리기 등을 지적하였고,⁶⁶⁾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상⁶⁷⁾ 충청남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2002년 발간된 문화재청의 기본계획에서는 문화재 보존관리 기록의 체계화를 표명한 바가 있고,⁶⁸⁾ 그 이전인 1995년부터 중요무형문화재 시리즈를 발간한 바가 있다.⁶⁹⁾

이필영의 『은산별신제』는 그 일환으로 발간된 것으로,⁷⁰⁾ 기존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모범 사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해당 종목에 대한 부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밝혔듯이, 그 역사적 환경에 대한 조사까지 폭을 넓힌 결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었다고 본다.

사실 이필영은 그 이전부터 종합적인 조사를 위하여, 때로는 참여관찰을 위한 장기간의 현지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지정 단위의 적정성, 조작 여부, 고증 내용과 절차, 지정 명칭의 적절성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기 위해서, 완전한 민속지 수준의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¹⁾

이를 위하여 조사 기간의 확대, 다수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며, 때에 따라서는 과도한 비용을 수반할 수도 있으나, 관련 당사자가 제출하는 간단한 신청서와 1~2일에 불과한 간단한 조사와 심사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결코 큰 비용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러한 비판적인 입장에 대하여, 혹자는 지정 자체에 대한 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종합적인 조사·연구의 효과는 단순히 사실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문화재로 지정된 종목 및 그 주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었을 때,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이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종목의 활용 가능성이 넓어지고, 해당 종목

66) 문화재청·한국역사민속학회, 2003. 2, 『중요무형문화재 단체종목 전승실태조사 및 지원관리방안 연구』.

67) 연합뉴스, 2003년 3월 10일자.

68)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문화재청, 2002년 8월).

69) 지금까지 간행된 간행물은 염색장(중요무형문화재 제11호), 바디장(제88호), 명주짜기(제87호), 조선왕조궁중음식(제38호), 궁시장(제47호), 유기장(제77호), 은산별신제(제9호), 진주검무(제12호), 강령탈춤(제34호), 동해안별신굿(제82-가호),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제82-나호), 진주삼천포농악(제11-가호) 등이다.

70) 이필영, 2002, 『은산별신제』, 화산문화.

71) 이필영, 2002, 「충남의 무형문화재 현황과 개선방안」, 『충청남도 문화재 관리정책의 현황과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개선방안

과 연계가 가능한 여타 자원들도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은산 별신제 등, 그 구체적인 사례는 후술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그러한 오류는 문화재청의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될 후속 조사·연구, 그리고 문화재연구소에서 기획한 연구결과에 의해 언제라도 드러날 수밖에 없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실 문화재를 지정한 현재의 자료가 왜곡되어 있다면, 영상 기록 작업은 오히려 부차적일 수도 있다. 왜곡된 자료를 영상화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에 의하면, 2002~2007년에 음향·영상 매체를 동원하여 전통 기·예능분야의 디지털화를 계획하고 있으나,⁷²⁾ 동시에 기존의 오류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지정 문화재에 대한 재분류의 필요성, 분리 또는 독립 지정에 대한 논란 또한 종합조사에 의하여 상당 부분 불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 필요성

- 문화재 지정에 대한 논란 해소
- 문화재청이 원형 훼손 및 변형 사례로 지목한 종목에 대한 대응책 마련

○ 조사의 범위와 방법

- 범위 : 종목에 대한 역사적 환경 부분까지 포함
- 방법 :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현지조사 (참여관찰방법 포함)

○ 조사결과의 활용

- 기존 오류의 수정 및 보완
- 활용의 폭 확대
- 지역사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정체성 정립

■ 종목별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예시)

한산 모시짜기 종목은 국가와 충청남도에서 중복하여 지정했을 뿐만 아니라, 길쌈놀이와 바디 제작을 독립하여 지정한 문제가 있다. 또한 은산 별신제, 보부상유품, 내포제시조, 청양윤남석가옥 등도 한산 모시짜기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은 이미 지적한 바가 있다. 아울러 기본적인 답사도 진

72)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문화재청, 2002년 8월).

제 4 장 중요무형문화재 관리운영의 개선방안

행하지 않았으나, 금강 및 지천에 위치했던 포구 또한 저산팔읍 시장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종합 조사에 있어서는 이들 모든 종목을 하나로 아우르는 범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18] 저산팔읍시장권 관련 통합조사 대상 목록 (예시)

구분	관련 종목
중요무형문화재	은산 별신제, 한산 모시짜기, 바디장
기타 지정 문화재	보부상유품, 한산 세모시짜기, 서천 저산팔읍길쌈놀이, 내포제시죽청양윤남석가옥, (산유화가)
미지정 역사자원	청양 미당장의 미륵제와 오방장승제, (비인 등지의 상무사 관련 유품 및 관련 놀이와 의례)

() : 관련성 또는 복원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종목

기지사줄다리기의 경우, 그 유래와 원형에 대하여 향토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다. 현재로서는 그 비판의 근거가 매우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지사줄다리기는 과거 아산만을 건너는 포구의 배후 집산지였던 기지사장을 배경으로 하였던 장터 민속이다. 따라서 아산만의 대표 포구였던 한진, 성구미, 안섬 포구 등과의 관계가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지사 주변 장시망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도 지정 문화재인 당진 안섬당제는 마땅히 기지사줄다리기와 관련하여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표 19] 내포북부상권 관련 통합조사 대상 목록 (예시)

구분	관련 종목
중요무형문화재	기지사 줄다리기
기타 지정 문화재	당진 안섬당제
미지정 역사자원	한진 나루 및 관련 당제, 성구미 나루, (내포 북부 옛 시장 관련 민속) 등

() : 관련성 또는 복원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종목

최근 사망한 박동진의 판소리 분야의 경우, 경기·충청의 중고제 전통과의

충청남도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개선방안

관계가 계속적인 논란거리이다. 현재 판소리는 동·서편제가 널리 알려져 있으며, 중고제의 전통은 끊어졌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그런 가운데 단순히 박동진이 공주 태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중고제의 맥을 잇고 있다고 소개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혼란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도 중고제 판소리의 면모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단 1회의 조사·연구 또는 학술행사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보다 정확한 이해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또한 부가적으로 판소리의 전통이 전라도의 동·서편제에 있다는 일반의 인식을 교정시킴과 동시에, 경기·충청도의 또 다른 중고제 전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도 클 것이라 본다.

한편 중고제의 전통을 살펴보면, 공주와 홍성 등지에서 활동한 고수관 명창, 그리고 금강 중·하류인 강경과 서천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던 김성옥-김정근-김창룡 가계 등 지역적 연고가 드러나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적 배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강경과 서천의 중고제 전통의 경우에는 내포제시조 또는 산유화가와의 관계가 집중 조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동진이 사망함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약간의 혼선이 빚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후계자의 선정에 따라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은 보유자 지정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0] 판소리 관련 통합조사 대상 목록 (예시)

구분	관련 종목
중요무형문화재	판소리(적벽가)
기타 지정 문화재	(내포제 시조, 산유화가)
미지정 역사자원	중고제 전통

() : 관련성 또는 복원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종목

대목장 전홍수는 전통문화학교에서 강의 활동을 하고, 개인적으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은 듯하다. 전수교육 조교가 없으며,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종합조사의 경우, 박물관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4 장 중요무형문화재 관리운영의 개선방안

[표 21] 대목장 관련 통합조사 대상 목록 (예시)

구분	관련 종목
중요무형문화재	대목장
기타 지정 문화재	없음
관련 자원	고건축박물관 현황

() : 관련성 또는 복원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종목

면천 두견주의 경우, 2001년 8월 보유자가 사망하였으나,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고 있다. 그런데 두견주와 밀접하게 관련된 면천 진달래민속축제는 같은 해 4월 시작되었으며, 최근 고려 개국공신 복지점에 대한 선양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막상 각각의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전개된 바가 없으며, 산발적으로 발견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의 축제문화의 소재로 포함시켰을 뿐이다. 이에 대한 폭 넓은 조사연구가 진행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향후 기지시 줄다리기와 같은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안샘의 경우, 조선시대 객사(客舍)에 부속된 샘이며, 바로 이웃하여 있는 연못[君子池]과 부속 정자[君子亭]은 수 차례에 걸쳐 복원되고 수리되다가, 1994년 현재의 모습으로 신축된 바가 있다. 또한 면천초등학교 교정 내의 은행나무나 아미산의 경우에도 보다 상세한 조사가 따라야 할 대상으로 보인다.⁷³⁾ 또한 실태조사의 경우, 면천 두견주의 상업화에 따르는 어려움 또한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2] 면천 두견주 관련 통합조사 대상 목록 (예시)

구분	관련 종목
중요무형문화재	면천 두견주
기타 지정 문화재	없음
관련 자원	면천 읍성 및 관아, 안샘, 면천 진달래 축제 등

() : 관련성 또는 복원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종목

⁷³⁾ 蛾蟬山은 고려시대 毘治였던 蒙山성과 마주하는 산으로, 용과 지네가 살면서 서로 다투다가, 할머니의 도움으로 아미산의 용이 이겨서 승천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 종합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방안

한편 무형문화재 제도의 경우, 종목을 재분류하고, 분리 또는 독립 지정을 한 경우에 통합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이러한 사례는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일 종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은 부지기수이다.

한산모시짜기의 경우, 도 지정 한산 세모시짜기와 중복 지정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저산팔읍길쌈놀이 또는 바디장과는 분리되기 힘든 종목이다. 또한 은산 별신제나 상무사 조직과는 동일한 저산팔읍 시장권의 민속일 뿐 아니라, 과거 관련 주체들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기지시 줄다리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도 지정의 당진 안섬당제, 그리고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한진나루의 당제도 기지시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경우, 지정 종목의 재조정 또는 통합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물론 재분류나 통합 등 종목 지정과 관련한 사안은, 법적 검토와 함께 문화재청을 통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⁷⁴⁾

그러나 종목 지정의 재검토 이전에 해당 종목들에 대한 통합관리는 자치단체 수준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산 별신제와 같은 의례나 놀이와 같은 단체 종목의 경우, 본래 독립된 개인적 또는 개별적 현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다른 사회적·역사적 현상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과도 관련이 깊은 문제로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조사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정체성의 확립과 관련한 활용의 폭도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74) 무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에서는 현재 편의상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일종목과 문화복합(또는 복합종목)을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본고의 논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다른 지면을 기약하고 단지 문제를 제기하는 선에서 그치고자 한다.

제2절 관리운영상의 개선을 위한 제언

■ 전수교육 활성화 방안

무형문화재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와 관련한 기존의 논의는 전수교육의 활성화 대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전수교육의 활성화는 사실상 해당 종목에 대한 사회적 지명도에 의존한다. 문화재청에서 지원금은 전수교육을 위한 것이라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생계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그 금액으로는 최저 수준의 생활조차 불가능하므로, 전수생은 물론 보유자조차 별도의 생계활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전수교육이 활성화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나마 생계활동에 해당 종목과 관련된다면 다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수생 등이 자의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문화재의 원형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기는 한다.

그러나 의무 공개행사에서 원형을 그대로 따르게 하거나, 보다 완벽한 원형을 기록으로 남기는 등의 보완책을 강구한다면 그에 대한 우려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시대적 변화에 따라 ‘창조적 계승’을 해야 한다는 당위론을 고려한다면, 전수자들의 다양한 변용은 부분적으로 용인될 수도 있다.

문제는 전수생이 생계를 위하여 전수교육을 포기하여 전혀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이다.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이러한 취약종목에 대한 집중지원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고려할 때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며, 또한 단순히 지원금을 증액한다고 하여 전수 지원자가 증가하고 전수교육이 활성화되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전수교육의 활성화는, 근본적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관건이라고 본다. 그리고 사회적 수요를 이끌어내는 힘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박동진 명창과 같이 개인적인 능력에 의하여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경우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대부분의 경우, 기·예능보유자 또는 전수생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관련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선결과제인 셈이다. 한때 취약종목으로 분류되었던 한산 모시문화제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한 결과, 잠재적 수요를 촉발한 때문이라 판단된다. 현재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강릉 단오제나 낙안읍성 축제의 경우도 시작부터 각광을 받았던 것

충청남도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개선방안

은 아니다.

다만 취약종목의 경우,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의 경우, 특히 전통문화학교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전통문화학교에서는 대목장 전홍수가 초빙교수의 자격으로 강의를 맡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적 수준에 그친 것이며, 전수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청남도와의 공식적인 협력체계 구축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2003년 새로 부임한 현 전통문화학교총장의 경우, 이전 국립민속박물관장으로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관련 이벤트의 개발에 열성을 보여 상당 부분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살린다면, 체계적인 전수교육 뿐만 아니라, 관련 행사에 많은 부분 도움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력이 가능한 구체적인 분야를 살펴보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동조사는 물론이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정에 대한 공동 연구, 학생의 전수교육 참여기회 확대, 무형문화재 관련 공연 참여기회 확대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 전수교육 여건 : 해당 종목의 활성화에 크게 의존
(인기종목은 전수 희망자가 충분함)
- 비인기종목 :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전수활동 자체를 포기
- 전통문화학교와 공식적 협력체계 구축방안 모색
 - 협력 가능 분야 : 공동조사,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교육 기회의 확충, 관련 공연의 참여기회 확충 등

■ 관련 종목의 통합관리

한편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었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몇 종목은 하나의 단위로 묶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도 지정 문화재를 포함할 경우에는, 그 대상종목은 더 늘어나며, 미지정의 대상을 고려한다면 연계 가능한 자원은 한층 늘어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저산팔읍시장권의 문화요소였던 은산별신제, 한산모시짜기, 바디장이다. 여기에 한산 세모시짜기, 서천 저산팔읍길쌈놀이, 보부

상유품, 내포제시조, 청양윤남석가옥 등 도 지정 문화재들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문화재들이다. 또한 현재 공주 태생의 박동진이 판소리 예능보유자로 되어 있었으나, 실상 중고제 판소리의 중심 가게는 강경-서천권이다.

기지시줄다리기의 경우에도 도 지정 문화재인 당진 안섬당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또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내포의 대표적인 나루였던 한진포구 및 그 당제와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한편 충청남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살펴보면, 거의 절반의 종목들이 과거 시장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다. 은산 별신제, 한산 모시짜기, 바디장은 저산팔읍 시장권의 문화요소들이며, 기지시는 내포 북부의 거점 장시였다. 중고제의 전통 또한 결코 시장과 상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사실 조선 후기 이후 마을의 민속들이 장터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전문 놀이패들 또한 장터를 순회하는 경향을 보일 정도였다. 시장을 민속의 보고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⁷⁵⁾ 특히 장터에서는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유인하여야 했던 관계로, 의례나 놀이 등 관련 행사를 거창하게 치를 수밖에 없었다.

앞서 실태조사에 있어서 역사적 환경에 대한 조사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거니와, 시장권은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그러나 막상 무형문화재의 조사에서, 조선 후기 이후 시장에 대한 내용은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정 문화재와 관련한 옛 시장권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자원을 발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저산팔읍권역처럼 상호 연계시킨 복합적인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드물게 상무사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 특징으로 부각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을 모두 고려한다면, 종합조사와 아울러, 관련이 깊은 문화재들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듯하다. 모시짜기, 길쌈놀이, 바디장의 경우, 통합 지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다른 종목과도 관련된 사안으로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에서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안으로, 본고에서 논의할 범위를 벗어난다.⁷⁶⁾

75) 정승모, 1992, 『시장의 사회사』, 웅진.

76)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무형문화재의 지정에 있어서 개별종목과 복합종목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바이다. 복합종목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수 개별종목의 군집을 의미하는 바, 기존의 개인종목과 단체종목의 구분과는 다르다. 그러나 이는 본고의

충청남도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개선방안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 제도 내에서 운용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선에서 그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한산모시와 은산별신제 등의 상호 교류의 증진이다. 여기에는 도 지정 문화재 뿐만 아니라, 비지정 문화자원을 포함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럴 경우, 모시재배(비지정)-직조(모시짜기,바디장)-유통(상무사유품)-놀이(길쌈놀이)-의례(은산별신제, 미륵제=비지정)-고가(청양 윤남석가옥) 등, 생산·제작에서 관련 사회조직과 의례와 놀이 등을 망라하는 종합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가칭 ‘저산팔읍문화제’로의 발전을 상정한 가운데, 전체 속의 하나의 아이탬으로서의 성격을 점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지정문화재간의 교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상호 방문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심층적인 연구결과가 나온다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연합 공개행사를 개최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관련 전문가와 일반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저산팔읍 전체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동시에 합동 공개행사를 개최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저산팔읍문화권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의 경우, 장기적으로 저산팔읍문화권을 설정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금강 하구에서 논산 강경과 부여 규암에 이르는 구역은, 저산팔읍 상무사를 중심으로, 과거 단일 상권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시라는 특산물의 유통을 중심으로 하였기에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가 어렵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산팔읍 시장권에 속한 문화재들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은, 향후 중·장기적 발전을 전제로 하는, 사전 환경 조성전략으로서의 의의도 갖는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23]과 같다.

한편 기지시 줄다리기는 현재까지 문화재 지정건수가 적고, 사전 조사도 미비한 상황이다. 그러나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추가적인 자원을 확보한다면, 통합관리가 가능한 충분한 후보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진과 성구미 나루의 관련 의례를 포함한 문화자원, 기지시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 민속을 발굴할 여지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행담도나 삼교제방조제 또한 기지시와 무관하지는 않다. 행담도는 한진 나루와 만호 나루 사이에 있었던 섬이었으며, 삼교천 방조제의 경우는, 1979년 완공 이후 한진 나루가 쇠퇴하였고, 그 배후 시장이었던 기지시장도 쇠락했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이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생략하고자 한다.

제 4 장 중요무형문화재 관리운영의 개선방안

[표 23] 저산팔읍시장권 관련 문화재의 관리개선방안

구 분		내 용	
관 리 개 선 방 안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후 ▪ 관리운영방안(행사 프로그램 포함) 마련 	
	제 1단계	시기	종합 실태조사 종결 이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인 실태조사 : 상무사 관련 당사자의 사망 이전 시행 ▪ 해당 종목간 상호 방문공연 포함 지속적인 교류 ▪ 합동공연 개최 ▪ 관련 전문가를 동원한 학술회의 개최 <p>→ 저산팔읍시장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p>
		종합실태조사 시행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세부사항보다 전체적 특징 파악에 주력 ▪ 특히 해당 종목간 상호 연관성 규명 ▪ 기존의 오류에 대한 합의안(잠정) 도출 ▪ 저산팔읍시장권과 관련한 미발굴 문화자원 발굴
	제 2단계	시기	종합적인 실태조사 이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실태보고서의 발간 ▪ 통합관리 운영(안) 마련 ▪ 문화재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 추진
목 표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적으로 저산팔읍시장권 역사문화자원 활용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되, ▪ 장기적으로 관련 문화재의 발굴·정비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한 지역개발전략의 사전작업으로 추진 	
	시기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의 본 제도 진입 이후의 후속사업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문화재간의 방문공연과 합동공연을 통하여, 저산팔읍이라는 권역을 널리 알리고, ▪ 동시에 관련 미발굴자원을 지속적으로 찾아냄으로써, 관련 콘텐츠를 강화하여, ▪ 하나의 중요 권역으로 부각시킨 후, ▪ 장기적으로 관련 개발사업을 추진함 	

기 때문이다. 따라서 삽교호 주변에 최근 건립된 함상공원의 경우, 아산만의 변화상을 보유할 수 있는 자료를 일정공간에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아산만에 인접한 지역은 공단 및 신항 건설에 따라 공업단지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따라서 기지시줄다리기는 당진항 일원의 옛 시장과 포구를 대표하는 문화재로서의 위상을 고려하여 활용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 포구와 옛 장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24]와 같다.

충청남도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개선방안

[표 24] 내포 북부상권 관련 문화재의 관리개선방안

구 분		내 용
관 리 개 선 방 안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발굴 자원을 찾아내고, ▪ 그에 따른 통합관리 가능성을 타진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실태조사 실시 : 특히 한진 등 나루 및 기지시 주변 옛 시장의 자원을 발굴하여, 기지시 관련 행사의 차별성 확보에 주력 ▪ 학술회의 개최 : 기지시 줄다리기가 유래한 역사적 환경 및 관련 종목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춤
	종합실태조사 시행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역에서 논란이 발생한 줄다리기의 유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함 ▪ 관련 역사문화자원의 현황 파악, 전승·복원 가능성, 기지시 줄다리기와 연관성 규명에 초점
장 기 계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지시(거점 장터)의 관련 민속, 주변 장터와 나루 등의 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파악 후, 관련 운영 프로그램 마련 ▪ 공업단지 조성 등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은 당진 북부권의 역사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기제로 활용 ▪ 실태조사 결과, 관련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고,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할 경우, 관련 프로그램 및 개발사업의 추진 가능성 모색

판소리는 또 다른 차원에서 통합관리가 가능한 자원이다. 우선 지적하여야 할 부분은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가운데 충청남도의 유일한 예능 분야의 종목이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하여 충청남도를 대표하여야 한다는 단순 논리가 적용될 수는 없지만, 일반에게 인식되는 효과는 또 다른 측면이다.

그런데 충청도를 대표하는 판소리는 중고제이다. 박동진의 판소리가 과연 중고제에 속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김창진과 정춘풍을 통하여 중고제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중고제의 전통이 끊어졌다고 하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 충청도 판소리의 맥, 나아가서 음악의 맥을 이어갈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해당 문화재의 소재지가 다르지만, 내포제시조와 산유화가 등 충청도 소리와의 관련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고제 판소리와 맥을 같이 하는 미발굴 전통음악자원의 발굴을 위한 역할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25]와 같다.

[표 25] 판소리의 관리개선방안

구 분		내 용
관 리 개 선 방 안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동진의 판소리의 특징을 조명하고, ▪ 충청도 중고제와의 관계 및 중고제의 영향을 받은 여타 종목의 현황 파악 후, ▪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
	종합실태조사 및 학술회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동진 판소리에 대한 조명 ▪ 내포제시조, 산유화가와의 관계 조명 ▪ 기타 중고제와 관련이 깊은 미발굴 자원에 대한 조사 ▪ 중고제 판소리가 시작되고 전승이 단절되게 된 역사적 배경 ▪ 중고제 명창의 계보 등 <p>→ 충청도 판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p>
	종합실태조사 시행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참여범위 : 순수 국악 분야, 음악(사회)사, 예능 분야를 전공하는 역사학 또는 민속학자 등 ▪ 학술회의와 판소리 공연을 동시에 추진하여 사회적 관심을 최대한 유도함
장 기 계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적으로 판소리 명창으로서의 계보를 잇는 것을 목표로 삼되, ▪ 중고제의 전통과의 맥이 닿고, 내포제시조 등과의 연관성이 있다면, ▪ 충청도 음악을 대표하는 종목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중고제를 고려하는 경우, 전통이 확실한 강경·서천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 <p>※ 중고제 마지막 전승자로 꼽히는 이동백과 김창룡은 서천 태생임</p>

그러나 대목장의 경우는 통합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목장의 기예는 지역적 차별성이 거의 없는 개인의 기능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목장으로 지정된 보유자가 자신의 기예를 총동원하여 고건축박물관을 설립한 이상, 현재로서는 박물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박물관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충청남도 소목장 등을 포함한 목공예 부문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검토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26]과 같다.

충청남도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개선방안

[표 26] 대목장의 관리개선방안

구 분		내 용
관 리 개 선 방 안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건축에 대한 기여로서, 전수교육이 중심적 사항이므로, 특히 전통문화학교를 이용한 양성기회의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되, ▪ 기능보유자가 운영하는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모색함
	종합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교육 및 대외활동 현황 조사 ▪ 고건축박물관의 운영현황 조사
개 선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지원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문화재보수공사에 전수생의 참여기회 확대방안 모색 ▪ 고건축박물관의 관광자원화

면천 두견주의 경우, 상황은 다소 미묘하다. 술 자체는 단순히 지역적 특산주에 불과하나, 옛 면천을 대표할 수 있는 고려시대 복지검의 전설이 두견주와 관련이 있다. 또한 전설에 등장하는 지역은 모두 객사(客舍) 등 과거 관아 건물의 터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더욱이 최근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당진군에서는 복지검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진달래를 군화(郡花)로 지정하는 등 군 이미지와 연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된 민속주 자체는 지역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종목이다. 오히려 면천을 대표하는 것은 면천읍성, 복지검 및 관련 유적 또는 진달래 축제 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단순한 전설이 아닌 역사적 사실의 경우, 보다 철저한 고증작업과 아울러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리고 면천 두견주 자체로서는, 보다 활발한 연구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통하여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민속주로서의 위상을 굳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견주의 생산·유통 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소비자의 평가에 대한 조사가 오히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27]과 같다.

[표 27] 면천 두견주의 관리개선방안

구 분		내 용
관 리 개 선 방 안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견주의 생산·유통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 면천 진달래민속축제를 차별성을 가진 축제로 재편하는 관리운영 방안(행사 프로그램 포함)을 마련함
	종합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공식으로 있는 보유자에 대한 대안 ▪ 두견주의 생산·유통 과정의 문제점 ▪ 면천읍성의 역사유적, 특히 복지검 또는 면천 복씨와의 관계 ▪ 복지검 관련 유적의 실태 파악
	종합실태조사 시행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견주-복지검-면천읍성간의 상호관계를 조명할 수 있는 자료에 초점을 맞춤 ▪ 전설이 아닌 역사적 사실의 경우, 정확한 고증 절차를 밟아야 함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천 두견주의 대중화 실현 ▪ 면천 진달래민속축제의 활성화

■ 관련 프로그램 및 연계 코스의 개발

한편 원형보전과 창조적 계승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많은 사람들이 제기한 바가 있다. 최소한 공개 의무가 아니라, 민속축제 등 다른 행사에 참가하여 공연을 하는 경우라면, 기존의 틀을 깨는 연출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보유자 또는 보존회 그러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행정적 지원에 따른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초조사에 그 분야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듯이, 관광이나 이벤트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단계라 판단된다. 그럴 경우라 할지라도, 관원의 가장행렬, 도식적인 풍물경연대회, 또는 널뛰기와 같이 어디에서나 흔한 민속놀이 등의 프로그램에 따르지 않고, 최소한 그 축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적 성격의 아이템은 몇 가지 확보해야 한다.

연계 관광코스의 개발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역점을 두는 사항이다. 해당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코스의 개발은 큰 잠재력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 부족으로, 다른 시·군의 관광지를 연계하는 코스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특히 무형문화재 또는 천주교 성지순례 등과 같은 테마관광의 경우, 그 관광지가 광역에 분산되어 있어서 코스 개발조차 힘든 경우가 많다. 충청남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이러한 부문의 연계코스의 개발 및 시·군간의 협조체계의 구축이라 생각된다.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앞에서는 충청남도 관련 중요무형문화재 제도에 있어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은 편의상 개조식으로 기술하였음)

제1절 종합 실태조사의 실시

- 필요성
 - 문화재 지정 및 변형에 대한 논란 해소
 - 문화재청이 원형 훼손 및 변형 사례로 지목한 종목에 대한 대응책 마련
- 조사의 범위와 방법
 - 범위
 - 역사적 환경 부분까지 포함
 -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간의 상호연관성 규명
(통합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방법
 -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현지조사 (참여관찰방법 포함)
 - 동일한 문화권역에 속하거나 연관성이 높은 종목의 경우, 통합 실태조사 수행
- 통합 실태조사 사례 (예시)
 - 저산팔읍시장권의 무형문화재 및 관련 문화자원 : 은산 벌신제, 한산 모시짜기, 바디장, 보부상유품, 한산 세모시짜기, 서천 저산팔읍길쌈놀이, 내포제시조, 청양윤남석가옥, (산유화가), 미당장 미륵제 등
 - 내포 북부 시장권의 무형문화재 및 관련 문화자원 : 기지시 줄다리기, 당진 안섬당제, 안섬 나무, 한진 나무와 당제, 성구미 나무와 당제, (주변 장시의 의례와 놀이) 등
 - 충청도 전통 음악 관련 무형문화재 및 관련 문화자원 : 판소리, (내포제시조, 산유화가), 종고제 전통
 - 면천 두견주 관련 무형문화재 및 관련 문화자원 : 면천 두견주, 복지겸 관련 유적, 면천 진달래민속축제 등

제2절 전수교육 연계방안 구축

- 필요성
 - 비인기 종목의 전수생 양성
 - 관련 공연 또는 제작 기회의 확충
- 협력 가능 분야 : 공동조사,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교육 기회의 확충, 관련 공연의 참여기회 확충 등

제3절 관련 종목의 통합관리

- 필요성
 - 연계 활용에 따른 활성화
 -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 정립 효과
- 방법
 - 상호 방문 공연 또는 합동공연 개최
 - 장기적으로 통합 프로그램의 운영 모색
- 통합관리 대상 및 목표
 - 저산팍읍시장권의 무형문화재 및 관련 문화자원
 - 1차적으로 기존의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 장기적으로 내포문화권의 후속사업으로 개발사업 추진
 - 내포 북부 시장권의 무형문화재 및 관련 문화자원
 - 당진 북부 공업단지 배후권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제로 활용
 - 실태조사 실시 후 잠재력이 검증되면, 관련 프로그램 및 개발사업 추진
 - 충청도 전통 음악 관련 무형문화재 및 관련 문화자원
 - 1차적으로 판소리의 전승을 목표로 삼되,
 - 여타 음악 종목과의 연관성이 검증될 경우, 음악 메카로 집중 육성
 - 면천 두견주 관련 무형문화재 및 관련 문화자원
 - 면천 두견주의 대중화 실현
 - 면천 진달래민속축제와의 연계 강화 및 대표성 확립

제4절 관련 프로그램 및 연계 코스의 개발

- 연관 프로그램의 개발 : 충청남도의 지원에 따른 관광 등의 분야 전문가의 참여 필요
- 연계 코스의 개발 : 시·군의 경계를 넘는 경우에, 충청남도의 조정과 지원 필요

참 고 문 헌

- 김기호, 1981, 『틀무시의 유래』, 당문사.
- 김영운, 「음악·무용 분야 전승 유과 지정의 검토」, 문화재관리국, 1996, 『무형문화재 효율적 관리방안 세미나』 발표 원고.
- 김윤식, 『雲養集』.
- 김종태, 1996. 12., 「공예분야 전승유과 지정의 검토」,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 효율적 관리방안 세미나』.
- 문화재관리국, 1994. 10., 『중요무형문화재 운영 개선』
- 문화재관리국, 1996, 『중요무형문화재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 문화재관리국, 1998. 12., 『21세기를 대비한 무형문화재 전승·보급제도의 발전방향』
- 문화재관리국, 1999, 『새 천년을 대비한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 공청회』
- 문화재청, 2002,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 문화재청·한국역사민속학회, 2003. 2, 『중요무형문화재 단체종목 전승실태 조사 및 지원관리방안 연구』.
- 심우성, 1999, 「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제도」, 문화재관리국, 『새 천년을 대비한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 공청회』 발표 원고.
- 심정보·이달훈·강종원, 1999, 『면천읍성』, 대전산업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당진군.
- 오석민, 2002, 『충청남도 전통민속자원의 실태 및 관리현황』, 충남발전연구원.
- 오용록, 1996. 12., 「놀이·연희분야 전승유과 지정의 검토」,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 효율적 관리방안 세미나』.
- 이보형, 1996. 12., 「무형문화재 지정심의에 대한 검토」, 문화재관리국, 『무형문화재 효율적 관리방안 세미나』.
- 이양수, 1969, 『恩山別神考』, 부여향토문화연구회.
- 이우영, 1986, 『機池市줄다리기』, 집문당.
- 이인화, 1999, 『기지지 줄다리기의 제조명』. 객현향토문화연구소.
- 이인화, 2003, 『안섬 풍어제』, 충청남도당진교육청.
- 이필영, 2002, 「충남의 무형문화재 현황과 개선방안」, 『충청남도 문화재 관리정책의 현황과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 이필영, 2002, 『은산별신제』, 화산문화

충청남도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개선방안

- 이필영, 2003, 「무형문화재 정책의 근원적 문제」, 『역사민속학』 제16집.
- 이훈섭·황선민, 1990, 『보부상 연구』, 보경문화사.
- 정병호, 「중요무형문화재 보존관리의 개선방안」, 문화재관리국, 1994. 6.,
『중요무형문화재 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
- 정승모, 1992, 『시장의 사회사』, 웅진.
- 조선총독부, 1972(刊), 『釋奠·祈雨·安宅』, 東京:國書刊行會.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4. 6., 『중요무형문화재 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12., 『무형문화재 효율적 관리방안 세미나』

■ **집필자**

오석민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문학 석사(민속학 전공)

기본연구 03-12

충청남도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관리 개선방안

발행자 :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발행일 : 2003년 12월 31일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305-3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138-42번지

전화 : (042)824-7814

팩스 : (042)824-7817

인쇄처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